

월간 북한 동향

Monthly Report on North Korea

2020년 1월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과 언어표현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가. 언어표현 및 어문 규정 적용

○ 대내·대남·대외 동향 주요 내용: 북한 원문 그대로 적용

※ 예외 경우

- ① 북한 정권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찬양 수식어 및 '동지' 표현은 삭제, 대표 직책 표기
ex)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 '김정은 위원장'
- ② 국내 인사 실명 비난 시, 이름의 성(姓)만 공개 ex) 홍길동 → '홍OO'
- ③ 특정 행사 관련 내용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주석단, 동행, 맞이 등) 별도 정리

○ 개황·동향 제목·동향 개요·주간 보도일지·주요인물 동정: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 단, 북한 원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인용부호와 함께 표기

○ 남·북한 표현 차이 및 띄어쓰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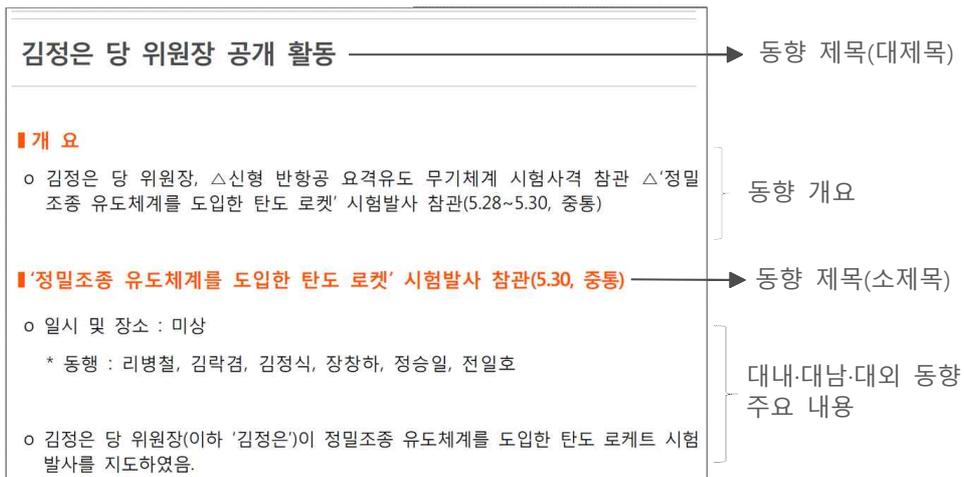
- ① 간단한 표기차이는 '괄호'로 보완 ex) 루출(누출), 폐허(폐허)
- ② 북한식 표현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 처리
- ③ 북한 고유명사를 제외한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용

나. 북한 주요 인물 직책 표기

○ 북한 원문을 그대로 적용하되 직책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 직책만 표기

○ 동일한 내용에서 주요 인사들이 여러 번 언급될 경우, 최초 1회만 직책 표기

※ 대내·대남·대외 동향 페이지 구성



2. 본 자료의 내용들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각 자료들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 주간 보도일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일'을 기준으로 작성
- 동일한 내용을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경우, 보도순서에 따라 출처 표기

3. 본 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현 및 시기에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황 1

대내동향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	6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현지 요해	12
김재룡 내각 총리 현지 요해	13
김정은 위원장, 새해 맞이 어린이들에게 '식료품' 전달 · 14	
'전원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면돌파전' 강조	15
삼지연시 거리 이름 지정 상임위 정령 발표	17
'당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평양시 쫓기대회 진행 ···	18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운영 시작	19
마식령스키장, 스키관광 시작	20
민족유산보호국, 비물질문화유산 새로 등록	21
정면돌파전 사상의 정당성 및 내부 결속 강조	22
주요공업부문 노동계급의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 강조	23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온천요양지 봉사 시작 안내 및 홍보 ··	25
각 도(직할시)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26
주체적 힘, 내적동력 강화 강조	27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주요 공업부문 쫓기모임 ···	28
'2019년 농업부문총화회의' 관련 동향	30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개최	31
故 황순희 장의식,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	33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3일간 진행 후 폐회	34
최동국 상업성 부상, '국가상업체계' 강화 대책 수립 선전 ···	35
백두산공격정신은 '투철한 자주의식의 발현' 강조	36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 진행	38
북 사회단체들, 당 전원회의 관철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3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상탐색 및 구조법」 채택	42
내각책임제 · 내각중심제 강화 강조	43
평양시 사상일꾼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44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	45

천도교청우당 중앙위 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	46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 체계로 전환	47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위생검역 주력	4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사업 적극 전개	50

대남동향

‘한반도 평화 구상’ 대통령 기고문 비난	51
국내 연구기관 및 언론 제기 ‘3월 위기설’ 부정	52
우리 해군의 해상 기동훈련 관련 인용 보도	53
미군 장비 국내 이동 비난	54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도	55
남북 탁구경기에서 ‘북, 3:1 승리’ 보도	5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남동향	57
국방부 장관 신년사, 합참의장·공군참모총장 대북발언 비난 ..	58

대외동향

미국 공습에 의한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 보도	59
일본 NHK ‘북 미사일발사 오보’ 비난	60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61
2020년 북중 친선 설 명절 모임	62
2020년 북중 친선 설 명절 종합공연	63
외무성, 2020년 설 명절 계기 주북 외교단 초청 연회 개최 ..	64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황 보도	65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석과 축전 교환	66

주요인물 동정	67
---------------	----

월간 보도일지	80
---------------	----

이달의 약사	91
--------------	----

개황

대내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4일 회의 진행 및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기념촬영(1.1, 노동·중통·중방)
- 신년 계기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 노동·중통·중방)
-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 현지지도(1.7, 노동·중통·중방)
- 故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빈소 조문(1.18, 중통·중방)
- 삼지연극장에서 '설 명절 기념공연' 관람(1.26, 중통·중방)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현지 요해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사리원닭공장을 현지에서 요해(1.2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재룡 내각 총리 현지 요해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 요해(1.7,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재룡 내각 총리가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현장 △영유광산 △보산제철소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1.21, 중앙통신)

◆ 김정은 위원장, 새해 맞이 어린이들에게 '식료품' 전달(1.2, 노동신문·중앙통신)

◆ '전원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면돌파전' 강조(1.3, 중앙통신·노동신문)

◆ 삼지연시 거리 이름 지정 상임위 정령 발표(1.4,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94호(1.3), '양강도 삼지연시 거리 이름을 정함에 대하여' 발표

- ◆ '당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평양시 쫓기대회 진행 (1.5, 중앙방송·중앙통신/1.6 노동신문)
 -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평양시 쫓기대회 진행
 - 5일 평양시에 이어 강원도·평안북도·함경남도·양강도(1.8, 중앙통신), 평안남도·황해남도·황해북도·자강도(1.9, 중앙통신), 함경북도·남포시·개성시·나선시(1.10, 중앙통신) 등 각 도시 등에서 쫓기대회 진행
- ◆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운영 시작(1.9, 중앙방송)
- ◆ 마식령스키장, 스키관광 시작(1.10, 중앙방송)
- ◆ 민족유산보호국, 비물질문화유산 새로 등록(1.10, 중앙방송)
- ◆ 정면돌파전 사상의 정당성 및 내부 결속 강조(1.12, 노동신문)
 - '정면 돌파전 사상의 정당성과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내부 결속' 강조
- ◆ 주요공업부문 노동계급의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 강조(1.13, 노동신문)
- ◆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온천요양지 봉사 시작 안내 및 홍보(1.14, 중앙통신)
- ◆ 각 도(직할시)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1.15, 노동신문)
 - 당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각 도(직할시)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 ◆ 주체적 힘, 내적동력 강화 강조(1.16, 노동신문)
- ◆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주요 공업부문 쫓기모임(1.16, 노동신문)
- ◆ '2019년 농업부문총화회의' 관련 동향
 -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자들 평양도착(1.16, 중앙통신·중앙방송)
 - 당·정부 간부들, 참가자 숙소 방문(1.16, 중앙통신·중앙방송)
 - 참가자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17, 중앙통신)
- ◆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개회(1.18, 중앙방송·중앙통신)
 - 2019년 농업부문총화회의가 17일 평양에서 열림.
 -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축하 서한 전달

- ◆ **故 황순희 장의식,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1.20,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 故 황순희 장의식, 평양 서장회관에서 국장으로 진행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애도사
- ◆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3일간 진행 후 폐회 (1.20,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 ◆ **최동국 상업성 부상, '국가상업체계' 강화 대책 수립 선전(1.20, 중앙통신)**
- ◆ **백두산공격정신은 '투철한 자주의식의 발현' 강조 (1.21,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 ◆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 진행(1.22, 중앙통신)**
 - 김정관 신임 인민무력상(육군 대장) 참석
- ◆ **북 사회단체들, 당 전원회의 관철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1.22~23, 중앙통신)**
 -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7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상탐색 및 구조법」 채택(1.23, 중앙통신)**
- ◆ **내각책임제 · 내각중심제 강화 강조(1.23, 노동신문)**
- ◆ **평양시 사상일꾼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8, 중방·노동)**
- ◆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1.30, 중앙통신)**
- ◆ **천도교청우당 중앙위 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1.30, 중앙통신)**
- ◆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 체계로 전환(1.30, 중앙방송·노동신문)**
- ◆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위생검역 주력(1.31, 노동신문)**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사업 적극 전개(1.31, 중앙통신)**

대남동향

- ◆ ‘한반도 평화 구상’ 대통령 기고문 비난(1.6, 우리민족끼리)
- ◆ 국내 연구기관 및 언론 제기 ‘3월 위기설’ 부정(1.10, 우리민족끼리)
- ◆ 우리 해군의 해상 기동훈련 관련 인용 보도(1.14,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해군의 해상 기동훈련 관련 연합뉴스 인용 보도 및 비난
- ◆ 미군 장비 국내 이동 비난(1.16, 노동신문)
 - 미 육군1보병사단 소속 2전투여단 장비들의 국내 이동 관련 연합뉴스 인용 비난
-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도(1.23, 메아리)
- ◆ 남북 탁구경기에서 ‘북, 3:1 승리’ 보도(1.24, 중앙통신)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남동향(1.26·27·28·31, 중앙통신)
 - 국내 방송을 인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마다 현황 보도
- ◆ 국방부 장관 신년사, 합참의장·공군참모총장 대북발언 비난(1.27, 중앙통신)

대외동향

- ◆ 미국 공습에 의한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 보도(1.6, 중앙방송·노동신문)
 - 미국 공습에 의한 거셈 슬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 보도, 간접비판
- ◆ 일본 NHK ‘북 미사일발사 오보’ 비난(1.6, 중앙통신 논평)
- ◆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1.11, 중앙통신)
 -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북미대화 복귀 및 생일축하메시지 전달 관련 대미·대남 비난
- ◆ 2020년 북중 친선 설 명절 모임(1.14, 중앙통신·중앙방송)
 - ‘2020년 북중 친선 설 명절 모임’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

- ◆ **2020년 북중 친선 설 명절 종합공연(1.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중국 예술인들의 '2020년 북중 친선 설 명절 종합공연'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
- ◆ **외무성, 2020년 설 명절 계기 주북 외교단 초청 연회 개최 (1.24, 중앙통신·노동신문)**
 - 외무성, 23일 2020년 설 명절 계기 주북 외교단 초청 연회 개최
 - 리선권 신임 외무상 참석 및 연설
- ◆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황 보도(1.29, 중앙방송·노동신문)**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자료 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황 보도
- ◆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석과 축전 교환(1.3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석과 외교관계 설정 70주년 계기 축전 교환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4일 회의 진행 및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기념촬영(1.1, 노동·중통·중방)

- 일자 및 장소: 12.31,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당 중앙위 본부 청사에서 진행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지도하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전원회의를 운영·집행하였음.
-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었음.
 - 첫째, 조성된 대내외 형세 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방향에 대하여
 - 둘째, 조직문제에 대하여
 - 셋째, 당 중앙위원회 구호집을 수정·보충할 데 대하여
 - 넷째, 조선로동당 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할 데 대하여
-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위 제7기 제4차 전원회의가 있는 때로부터 지난 8개월간 대단히 강도 높은 투쟁과 과감한 전진의 연속이었다면서 당이 정확한 대내외 정치로선을 수립하고 견지하며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한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직면한 주객관적인 난관들을 분석·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강구할 취지에서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말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정면돌파전을 벌릴 데 대한 혁명적 로선을 천명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의 힘, 국방력 강화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끊임없이 비추한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 건설을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대상건설들도 면밀히 추진되고 금속·석탄·건재공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이 장성 추세를 보인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전국에 자력갱생 경쟁을 호소한 강원도에서 당정책 관철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평안북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도 경쟁적으로 농산과 축산, 교육과 보건, 지방공업 발전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대하여 평가하면서 전체 인민이 당의 부름 따라 증산운동을 과감하게 벌려온 투쟁의 필연적 결과라고 강조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대화타령을 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 흥계를 로골화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이중적 행태라고 못박았음.
-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의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하면서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정돈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음. 나라의 경제를 재정비하자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현 실태를 엄책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내각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사업이고 당중앙위원회의 결정 집행이자 내각사업이라는 데 대하여 강조하고 전원회의 이후부터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는데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정면돌파전을 정치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담보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우리가 조·미 사이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 사이에만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 차례나 벌려놓고 첨단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십여 차례의 단독 제재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서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세계 앞에 증명해보이겠다고 말하였음.
-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서면토론들이 제기되었음.
 -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태형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박정천 총참모장, 박철민 청년동맹 중앙위원장, 리충길 국가과학기술위원장, 계명철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장, 김광남 김책 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을 비롯한 많은 참가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였음.
-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초안을 놓고 연구토의가 진행된데 따라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명시되어 있음.
 - 첫째,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 잠재력을 총 발동하여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것임.
 - 둘째,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인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할 것임.

- 셋째,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세울 것임.
 - 넷째, 강력한 정치외교적·군사적 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할 것임.
 - 다섯째,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고 도덕기강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 것임.
 - 여섯째,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력을 비상이 높여나갈 것임.
 - 일곱째,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당과 혁명,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분투할 것임.
 - 여덟째,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이 결정서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은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할 것임.
- 전원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보았음.
-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음. 리일환, 리병철, 김덕훈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하였음. 김정관, 박정천, 김형준, 허철만, 리호림, 김일철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음.
 -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해임 및 선거하였음. 리일환, 김형준, 리병철, 김덕훈을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하였음.
 -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음. 김형준, 한광상, 강종관, 김광철, 김경준, 양승호, 곽창식, 박광주, 박명수, 리봉춘, 송석원을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허철만, 리호림, 오일정, 김영환, 김일철, 김정호, 손영훈, 림광일, 최상건을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보선하였음. 장광명, 전현철, 심홍빈, 리태일, 최광일, 리완식, 리영철, 최춘길, 김학철, 김철, 박정근, 전학철, 조용덕, 신영철, 김승진, 문정웅, 이정길, 최성남, 전형길, 강선, 김영배, 김기룡, 신흥철, 김영남을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음.
 - 당 중앙검열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위원 소환, 보선이 있었음. 리상원을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하였음.
 - 당 중앙위원회 일부 부서 부장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음. 리일환, 김형준, 최휘, 리병철, 김덕훈, 최부일, 허철만, 리호림, 한광상, 오일정을 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임명하였음.
 -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을 임명하였음. 김동일, 리영길, 김여정, 리영식을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임명하였음.
 - 도 당위원장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음. 김영환을 량강도 당위원장으로 임명하였음.
 - 국가기관 간부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음. 김일철을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으로, 전학철을 석탄공업상으로, 전명식을 문화상으로, 김승진을 국가과학원 원장으로 임명하였음.

- 전원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으로 당 중앙위원회 구호집을 수정보충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음.
- 전원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으로 조선로동당 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이번 회의가 조성된 국면을 정면 돌파하고 우리 혁명을 새로운 양양으로 상승시키는데서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음.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것임.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 돌파해야 함. 오늘의 투쟁에서 객관적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 객관적 요인이 우리에게 지배되게 하여야 함.
-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진행된 장소에서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 신년 계기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 노동·중통·중방)

- 일자 및 장소: 일시 미상, 금수산태양궁전
 - 수행: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
-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2020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고 김일성 수령, 김정일 장군에게 경의를 표하였음.

■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 현지지도(1.7, 노동·중통·중방)

- 일자 및 장소: 일자 미상, 평남 순천시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
 - 동행: 조용원 당 제1부부장, 마원춘 국무위원회 국장, 이정남 당 간부
 - 맞이: 김재룡 내각총리, 장길룡 화학공업상
- 김정은 위원장이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였음.
- 당에서 기대하는 고농도 린안비료를 대량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쳐 진행해 나가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총계획과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공장 건설 실태를 료해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오직 우리 식으로, 우리 힘에 의거하여라는 당의 자력부강, 자력번영 사상을 새겨 안고 대상건설 과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해가고 있는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의 혁명적 투쟁 본태를 접하니 마음이 든든해진다면서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건설건재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산하 기업소들과 순천시를 비롯한 건설에 동원된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당의 경제강국 건설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정면돌파전의 맨 앞장에서 투쟁해 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고농도 린안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는 중대한 사업을 자체의 힘과 기술, 로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고 있는 것은 당의 정면돌파사상과 의도에 부합되는 좋은 시도이며 반드시 이 같은 자력갱생 투쟁에 의한 결과들을 계속 쟁취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정면돌파전의 첫해인 2020년에 수행할 경제과업들 중에서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대상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새해 첫 지도사업으로 이 공사장부터 찾아왔다고 하면서 대상공사에서 제기되는 자금 보장 문제를 당에서 시급히 대책할 것이며 이 사업을 당적으로 완강하게 밀어 주겠으니 내각과 화학공업성, 채취공업성이 주인다운 자세와 관점을 바로가지고 힘 있게 추진시켜보라고 언급하였음.

■ 故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빈소 조문(1.18, 중통·중방)

- 일자 및 장소: 1.17, 서장회관
 - 수행: 리설주, 박봉주·리만건·리일환·최휘·리병철·박태덕·박태성·김영철·김형준 당 부위원장
- 김정은 위원장은 리설주 여사와 함께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인 항일혁명투사 황순희 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고인의 령구를 찾고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당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백두산정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이 온 사회에 차 넘치도록 하는데 공적을 쌓아올린 황순희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음.

■ 삼지연극장에서 '설 명절 기념공연' 관람(1.26, 중통·중방)

- 일자 및 장소: 1.25, 삼지연극장
 - 수행: 리설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경희, 리일환 당 부장, 조용원·김여정 당 제1부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 김정은 위원장이 리설주 녀사와 함께 1월 25일 삼지연극장에서 설명절 기념공연을 관람하였음.

- 설 명절 기념공연에는 국무위원회 연주단, 삼지연관현악단, 공훈국가합창단과 함께 주요 예술단체 가수들이 출연하였음.
- '김일성 - 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들고 강화발전시키며 혁명적 당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김정은 위원장과 당에 대한 감사의 정을 담은 노래들이 장 내에 울려 퍼졌음. 공연은 설화시와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끝났음.
- 김정은 위원장은 리설주 녀사와 함께 무대에 올라 출연자들을 만나고 공연 성과를 축하하였음.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현지 요해

■ 개 요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사리원닭공장을 현지에서 요해(1.20,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 내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룡해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 최룡해는 기업소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올해에 금속공업이 용을 쓰며 일어서야 공업생산과 농업생산, 기본건설이 힘 있게 추진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군들이 주체철 생산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완비하며 생산능력 확장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한편 최룡해는 사리원닭공장에서 위생방역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과학적인 종금생산체계를 확립하며 사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고기와 알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김재룡 내각 총리 현지 요해

■ 개 요

- 김재룡 내각 총리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 요해(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 내용

- 김재룡 내각총리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 료해하였음.
- 강철직장을 돌아보면서 새해 첫 쇠물을 뽑아낸 로동계급의 로력투쟁을 고무해 주었으며 설비들의 가동상태와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일군들이 당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새기고 실제적인 생산적 양양으로 나라의 경제장성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를 가질데 대하여 강조되었으며 련관단위들에서 철강재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들이 토의되었음

■ 개 요

- 김재룡 내각 총리가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현장 △영유광산 △보산제철소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1.21, 중앙통신)

■ 주요 내용

- 내각총리인 김재룡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 김재룡은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현장을 돌아보면서 구조물공사와 설비조립을 질적으로 하며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고 현장지도일군들이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 데 대한 문제 등을 강조하였음.
- 영유광산에서 김재룡은 광석운반능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실천적 문제들과 품위가 높은 정광을 생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며 일군들이 생산일면에만 치우치는 현상을 극복하고 생산자들의 로동안전, 후방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를 최대한으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드는 것과 함께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가치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김재룡은 보산제철소를 돌아보았음.

김정은 위원장, 새해 맞이 어린이들에게 '식료품' 전달

■ 주요 내용(1.2, 노동신문·중앙방송)

- 새해 주체109(2020)년을 맞이한 희망넘친 조국강산이 태양의 축복받은 온 나라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로 더욱 밝아졌음.
-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을 위대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를 맞는 전국의 원아들과 소학교학생들,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은정어린 식료품을 보내 주시였음.
-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혁명의 계승자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의 원아들이 또다시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 안았음.
- 혁명학원 원아들은 갈수록 뜨거워지는 당의 은덕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보위와 부강조국건설에 헌신해온 부모들처럼 주체혁명의 대, 백두의 행군길을 역세계 이어나갈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음.
- 각지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들도 갖가지 식료품을 가슴 한가득 받아 안은 원아들의 기쁨으로 흥성이었음.
- 아버지의 따듯한 정이 흘러넘치는 행복의 요람에서 한점의 구김살도 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교육자, 보육원들은 더 활짝 피여날 후대들의 미래를 확신하였음.
- 수도 평양으로부터 북방의 산골마을과 분계연선, 외진섬마을에 이르는 방방곡곡에서도 어머니당의 은정이 어린식료품을 받아 안은 우리 아이들의 기쁨 넘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음.
- 학부형들과 근로자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뜨겁고 다심한 친아버이 사랑에 걱정을 금치 못하며 김정은 위원장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었음.
- 새해의 첫 아침에 펼쳐진 가슴 뜨거운 화폭은 어머니당이 후대중시, 미래사랑의 뜻과 정으로 가꾸어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소중한 모습임.

'전원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면돌파전' 강조

■ 개 요

- '전원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면돌파전' 강조(1.3, 중앙통신·노동신문)
- 제목: <당 창건 75돌을 맞는 올해에 정면 돌파전으로 혁명적 진군의 보폭을 크게 내짚자>

■ 주요 내용

- 이번 전원회의 보고는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직면한 주객관적인 난관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뚜렷이 밝힌 불멸의 대강임.
- 지난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양양기를 열어나갈 데 대한 당의 호소 따라 인민은 영웅적 투쟁을 벌려 난국을 맞받아 전진 비약해 나가는 주체조선의 기상과 잠재력을 과시하였음.
 -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 수준을 돌파하는 전례 없는 대풍을 마련하였음.
 - 삼지연시 꾸리기 2단계 공사,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건설을 비롯한 국가적인 대규모 중요대상 건설들이 완공되거나 진척되었음.
 - 당정책 관철에서 본보기가 되고 있는 강원도의 호소 따라 각 도들이 경쟁적으로 농산과 축산, 교육과보건, 지방공업 발전에서 뚜렷한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이번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것임.
 -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우리의 자주적인 전진을 방해하는 도전과 난관의 근원을 뿌리채 제거해버리기 위한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공세임.
-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임.
 -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고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역할을 강화하여야 함.
 - 경제사업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철저히 확립하고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 자립경제를 떠받드는 주요 공업 부문들에서부터 실제적인 생산적 양양을 일으켜야 함.

- 사회주의문화 건설에서의 성과로 정면돌파전을 뒷받침하여야 함.
 - 과학기술은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한 오늘의 형편에서 우리가 의거할 전략 자산이며 정면돌파전의 열쇠도 다름 아닌 과학기술임.
 -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임. 인재육성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함. 고등교육기관들을 교육 단위인 동시에 과학연구기지로 되어야 함.
-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외부적으로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본태를 고수하여 우리 혁명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임.
 -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확립하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섬멸전을 벌려야 함.
- 오늘의 정면돌파전 승리의 결정적 담보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력을 높여나가는데 있음.
 - 당 내부 사업에 큰 힘을 넣어 당 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화하여야 함.
- 백두산정신으로 정면돌파전에서 성과를 달성하고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야 함.
 - 가장 극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창조된 백두산정신은 그 어떤 역경도 뚫고 기적을 안아온 백승의 보검임.
 - 우리는 지난 해 김정은 위원장이 생눈길을 헤치며 백두의 혁명전구에 대한 준마행군을 단행한 의도를 깊이 새겨 안아야 함.
 -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가증될수록,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백두산에 올라 용진해 나가야 함.
- 백두산정신으로 정면돌파전에서 성과를 달성하고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야 함.
 - 올해는 정면돌파전의 첫 해임. 각오와 결심을 굳히고 분발하여 기적을 창조하여야 적들의 기를 꺾고 당의 전략적 구상 관철을 위한 개척로를 열어제낄 수 있음.
 - 당 창건 75돌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자력부강의 승전포성을 울려나가야 함.

삼지연시 거리 이름 지정 상임위 정령 발표

■ 개 요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94호(1.3), '양강도 삼지연시 거리 이름을 정함에 대하여' 발표(1.4,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 내용

- 량강도 삼지연시의 거리 이름을 정하였음.
- 3일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 삼지연시에 높이 모신 김정일의 동상 앞으로부터 삼지연시 입구까지 뻗어있는 중심축도로구간을 봇나무거리로,
 - 삼지연학생소년궁전으로부터 배개봉호텔까지의 구간을 밀영거리로,
 - 백두산종합박물관으로부터 삼지연 1려관까지의 구간을 청봉거리로,
 - 중앙은행 량강도 삼지연지점으로부터 얼음조각축전 및 음악축전장까지의 구간을 리명수거리로,
 - 삼지연호텔(300석)로부터 삼지연청년역까지의 구간을 못가거리로,
 - 삼지연소년단 야영소로부터 얼음조각축전 및 음악축전장까지의 구간을 배개봉거리로 정하였음.

‘당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평양시 꺾기대회 진행

■ 개 요

- ‘당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평양시 꺾기대회 진행(1.5, 중앙방송·중앙통신/1.6 노동신문)
- 5일 평양시에 이어 강원도·평안북도·함경남도·양강도(1.8, 중앙통신), 평안남도·황해남도·황해북도·자강도(1.9, 중앙통신), 함경북도·남포시·개성시·나선시(1.10, 중앙통신) 등 각 도시 등에서 꺾기대회 진행

■ 주요 내용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꺾기대회가 5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음.
- 김재룡 내각총리와 김덕훈 당 부위원장, 김일철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수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음.
- 김능오 평양시 당위원장, 최희태 모란봉구역 인민위원장, 김철호 김책공업종합대학 학부장, 정영숙 력포구역 협동농장 경영위원장, 박순일 평양시 청년동맹위원장이 결의토론을 하였음.
- 토론자들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김정은 위원장 보고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주체혁명 위업 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의지, 백두의 공격정신과 기질이 맥박치는 전투적 기치이라고 강조하였음.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분발하여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대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 진군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을 데 대하여 말하였음.
-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되었음.
 - 결의문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구호를 높이 들고 총꺾기하여 조선로동당 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며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위력과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과시할 의지를 피력하였음.
- 이어 군중시위가 있었음.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운영 시작

■ 주요 내용(1.9, 중앙방송)

- 주체109(2020)년 1월 10부터 운영을 시작하는데 손님들은 다기능화된 복합치료 봉사기지, 체육문화휴식기지로 전변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치료와 휴식을 배합한 다양한 봉사를 받게 됨.
- 손님들은 자기의 체질상 특성과 취미와 요구에 따라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물고기온천욕, 별장온천욕, 개별치료, 감탕치료, 가족별치료, 파라핀치료, 모래욕치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음.
 - 또한 운동실, 당구, 탁구, 물놀이, 어린이 놀이장, 미니 골프, 사격유희, 전자오락 등 여러 가지 운동과 오락들을 통해서 충분한 휴식도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스키장에서 스키 타기, 판스키 타기, 썰매, 눈오토바이, 눈빠스, 눈스케이트 타기도 진행할 수 있음.
- 요구에 따라 치료일정과 치료기일을 정할 수 있음.
- 휴양을 희망하는 손님들은 평양고려국제여행사와 연계해서 예약해야 함.
 - 예약시간은 9시부터 12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이며 휴식 없이 봉사를 진행함.

마식령스키장, 스키관광 시작

■ 주요 내용(1.10, 중앙방송)

- 지난 8일부터 마식령스키장에서는 스키관광이 시작되었음.
- 마식령스키장은 김정일의 숭고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려고 그토록 마음 쓰는 김정은 위원장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해서 훌륭히 일떠선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기지임.
- 김정은 위원장은 주체102(2013)년 한여름의 무더위와 12월의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산세 험한 마식령스키장 건설장을 찾고 찾아 인민을 위한 대중체육 관광기지로 꾸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었음.
- 마식령스키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정이 어려 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스키장을 찾는 손님들이 사소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스키 봉사와 숙식조건 보장에 힘을 넣었음.
- 지금 이곳 마식령스키장에서는 스키와 썰매, 눈스케트, 스케트봉사와 함께 마식령 지구에서 나오는 마가목과 머루, 산나물, 산열매를 이용해서 차 봉사와 민족요리 봉사도 다양하게 하고 있음.
- 지난 7일과 8일 사이에 마식령에는 눈질이 매우 높은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스키 주로가 대단히 좋아졌음.
- 한겨울 하얀 눈으로 장관을 이룬 마식령스키장은 지금 이곳을 찾는 우리 인민들에게 희열과 낭만을 안겨주고 있음.

민족유산보호국, 비물질문화유산 새로 등록

■ 주요 내용(1.10, 중앙방송)

- 최근 민족유산보호국에서 여러 개의 대상들을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했음.
- 이번에 24절기 풍습과 밧줄당기기, 줄넘기, 숨박꼭질은 국가 비물질문화유산으로, 회령 행미¹⁾와 대동강 송어국은 지방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음.
- 새로 등록된 비물질문화유산들은 인류문명의 초창기부터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온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전통적인 유산의 하나인 24절기 풍습은 슬기로운 우리 인민들이 고대시기부터 벌써 천체운동에 대한 관찰에 기초하여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아가는 자리길을 24개의 절기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농업을 비롯한 생산활동과 일상생활을 진행해온 노동생활 풍습임.
- 또한 밧줄당기기는 예로부터 단결력이 강한 우리 인민들이 창조적 노동과정에 만드는 민족체육 종목의 하나로써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 강이하고 낙천적이며 진취적인 감정과 정서가 반영되어 있으며 숨박꼭질은 여러 명의 아이들이 몸을 숨기면 한 아이가 숨은 아이들을 찾아내는 어린이들의 놀이로써 아이들이 명랑하고 쾌활하게 놀면서 지혜와 용감성을 키우며 체력을 단련하는 데 좋은 놀이임.
- 이번에 민족유산보호국에서는 조선옷차림 풍습에는 록의홍상을, 녹두 이용풍습에는 녹두목을 새로 포함시켰음.
- 조선옷차림 풍습에 새로 포함시킨 록의홍상은 예로부터 우리 여성들이 결혼식 날이나 명절날에 초록색 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즐겨 입은 전통적인 예복으로서 여기에는 조선 여성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부드러우면서도 강이한 정신, 단정하고 검박한 품성, 민족적 정서가 깃들어 있음.
- 회령 행미, 대동강 송어국, 젓갈문화, 녹두 이용풍습을 비롯한 비물질문화유산들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오늘까지 훌륭히 전해오고 있는데 대하여 역사적 사실과 전통적인 기술, 기능과 경험에 담아 잘 보여주고 있음.

1) 백살구. 회령3美(杏美, 土美, 女美) 중 하나로 회령 백살구의 아름다움을 일컬음.

정면돌파전 사상의 정당성 및 내부 결속 강조

■ 개 요

- '정면 돌파전 사상의 정당성과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내부 결속' 강조 (1.12, 노동신문)
- 제목: <혁명의 활로를 밝혀주는 우리 당의 정면 돌파사상>

■ 주요 내용

-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 로선을 제시하였음.
- 당의 정면돌파전사상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주동적인 공격으로 현 국면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혁명적 투쟁전략이며 실천 강령임.
-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현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제재 이외에 더는 억제수단이 없음을 통감한 적대세력들이 이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상, 우리는 주저할 것도 없이 용감하게 정면돌파해 나가야 함.
- 정면돌파전을 벌릴 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 로선에는 불패의 일심단결과 무적의 군력, 자립경제의 막강한 저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응축되어 있음.
-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정면돌파전사상의 정당성을 뼈에 새기고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개척로를 앞장에서 열어제끼는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가 되어야 할 것임.

주요공업부문 노동계급의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 강조

■ 주요 내용(1.13, 노동신문)

-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소식에 접한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 로동계급이 산악 같이 떨쳐나섬.
-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순천린비료공장건설 현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당의 자력부강, 자력번영사상을 심장마다에 새겨 안고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분야의 개척과도 맞먹는 아름답고 어려운 대상건설과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해나가고 있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의 혁명적 투쟁본때를 높이 평가하였음.
- 이번 현지지도는 나라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앞에 부과된 중대한 사명감을 깊이 새기고 더욱더 분발해 나서게 하는 고무적 힘으로 됨.
- 지금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 가슴은 당의 부름에 언제나 영웅적 실천으로 화답해온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곳곳이 이어 정면돌파전의 첫해인 올해를 주요공업부문이 들고일어나는 해,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조국력사에 특기할 전진비약의 해로 빛내일 불타는 결의로 충만되어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석탄, 전력, 금속, 화학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까.》
- 당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에서는 자립경제를 떠받드는 주요공업부문들에서부터 겹쌓인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실제적인 생산적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음.
- 오늘날 경제전선은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치열한 대결장으로 되고 있으며 주요공업부문은 그 전초선에 서 있음.
- 현시기 주요공업부문에서의 생산 활성화 문제는 단순히 강재 몇 십만, 전력 몇 십만kW를 더 생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판가름되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임.
-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와 원료, 자재, 설비들이 주요공업부문에서 나옴.
- 주요공업부문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생산공정의 주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증산의 포성을 련속 다발적으로 울려나갈 때 원수들의 봉쇄 압박책동에 통구멍을 낼 수 있음.
- 우리 인민은 오늘도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나날들을 잊지 못하고 있음.

- 그때 우리의 금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김일성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불사르며 천리마대고조의 봉화를 세차게 지퍼올려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음.
- 주요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력사의 역풍이 거세어지면 질수록 혁명의 붉은기, 자력갱생의 기치를 힘차게 휘날리며 사회주의조선의 질풍같은 진군을 힘있게 견인하고 추동하여야 함.
- 주요공업부문에서 전진발전을 저애하는 요인들을 뿌리채 제거해버리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
- 주요공업부문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맡은 국가경제기관들과 일군들은 가능한 생산 잠재력을 총 발동할 생각을 하지 않고 손쉽게 수입에 매달리는 현상, 아랫단위들을 강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문제 등 지난 시기에 나타난 폐단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함.
- 국내의 생산단위, 연구단위, 개발단위와의 긴밀한 협동으로 부족되는 모든 것을 해결해나가는 기풍을 확립하고 군중토의를 거쳐 일단 세운 계획은 무조건 집행하도록 강한 규률을 세우며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는데 어깨를 들이밀어야 함.
- 과학적이고 대담한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면돌파전을 과감히 벌려야 함.
- 과학적인 전략은 성공의 열쇠이고 대담한 실천은 비약의 담보임.
- 인재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켜나가야 함.
- 우리가 적들의 악랄한 제재봉쇄책동을 무력화시키고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면 첫째도 둘째도 인재와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해야 함.
- 일군들이 기마수, 기관차가 되어 대중을 정면돌파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함.
- 오늘 경제건설에서 눈에 띄이는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는 주되는 원인은 원료와 자재, 자금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군들의 낡은 사상관점과 일본새에 있음.
- 남에 대한 의존심과 수입병, 패배주의와 회의주의, 본위주의와 특수화, 무능력과 무책임성을 뿌리뽑아야 경제건설이 활력있게 전진할 수 있음.
-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짜고들어야 함.
- 전국가적으로 주요공업부문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주요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며,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과감히 벌려 당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가 되자.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온천요양지 봉사 시작 안내 및 홍보

■ 주요 내용(1.14, 중앙통신)

- 인민들의 문명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종합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로 일떠선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봉사가 시작되었음.
- 휴양지건설에 참가한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족, 평안남도안의 로력혁신자들을 비롯하여 평양, 남포, 원산, 정주, 연산, 흥원, 강계 등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덕군 온정리의 온천문화휴양지를 찾아오고 있음.
- 실내온천장, 야외온천장들은 온천욕을 하는 사람들로 날마다 흥성이고 있음.
- 스키주로들에서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칠 새 없음.
- 탁구, 실내골프, 전자오락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문화생활도 사람들에게 지을 수 없는 인상을 주고 있음.
- 한편 양덕군 읍지구에 꾸러진 온천요양지에서도 봉사가 시작되었음.

각 도(직할시)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 개 요

- 당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각 도(직할시)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1.15, 노동신문)

■ 주요 내용

-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각 도(직할시) 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20년 1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되었음.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황해북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였음.
- 김재룡 내각총리, 리만건·리일환·최휘·리병철·김덕훈·박태덕·박태성 당 부위원장들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였음.
- 보고들에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에서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결함들이 분석총화되었음.
- 보고자들은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 도 안의 모든 력량을 총집중할 데 대하여 지적하였음.
- 보고자들은 증산절약과 질제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 재해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였음.
- 보고자들은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보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사상전을 공세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지적하였음.
- 끝으로 보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의 웅대한 작전도 따라 조선로동당 창건 75돌이 되는 올해의 진군보폭을 더 크게 내짚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자고 호소하였음.

주체적 힘, 내적동력 강화 강조

■ 개 요

- 주체적 힘, 내적동력 강화 강조(1.16, 노동신문)
- 제목: <우리의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 주요 내용

-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의 기상으로 온 나라가 약동하고 있음.
-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자강력의 비상한 증대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도전과 난관을 근원적으로 일소하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전면적인 양양기를 열기위한 주동적인 공세임.
- 주체적 힘은 혁명과 건설의 전진동력이며 그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적 힘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혁명의 원리임.
-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내부적 힘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을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최상의 방략임.
- 주체적 힘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상승기를 열기 위한 필수적 요구임. 우리는 주체적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조성된 난국을 자력으로 정면돌파하고 부강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아가야 함.
- 주체적 힘은 곧 집단주의의 위력임. 우리는 집단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켜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해나아가야 함.
- 조성된 난국은 엄혹하지만 정면돌파전으로 맞받아뚫고 기어이 승리를 이룩하려는 당과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투철함.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주요 공업부문 쉼기모임

■ 주요 내용(1.16, 노동신문)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쉼기모임들이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 단위들에서 진행되었음.
- 쉼기모임들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음.
- 토론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맞받아 뚫고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철의 신념과 의지, 백두의 공격정신과 기질이 맥박치는 전투적 기치이라고 강조하였음.
- 경제전선을 오늘의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으로 정한 당의 의도를 깊이 새겨 안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역센 힘으로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며 혁명적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을 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음.
-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정면돌파 사상을 철저히 관철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뚜렷한 경제건설성과, 자랑찬 로력적 성과로 빛내일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내각사무국 종업원쉼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내재하고 있는 결함의 원인을 옳게 찾고 그를 바로잡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며 창조성, 창발성을 적극 발휘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족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 경제사업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명심하고 자립경제를 떠받드는 주요공업부문들에서부터 실제적인 생산적 양양을 일으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음.
- 금속공업성 종업원쉼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주체철생산 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면서 생산능력을 에너르기 절약형으로 확대하는 사업에 중심을 두고 증산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철강재의 질을 높이도록 경제조직과 지휘를 짜고들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쉼기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올해를 금속공업부문이 용을 쓰며 일어서는 해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국가적인 철강재수요를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화학공업성,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명간화학공장 종업원쉼기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화학공업의 발전이자 자립경제건설이라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화학공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화학공장들을 정비보강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충분히 보장할 결의들을 피력하였음.
- 전력공업성 종업원쉼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새로운 동력기지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자연에너르기를 적극 개발 리용하며 생산된 전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음.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청천강화력발전소, 수풍발전소 종업원궐기 모임들에서는 발전기관리와 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현존 발전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전력생산을 안정적으로 장성시켜나갈 전력생산자들의 의지가 표명되었음.
- 2.8직동청년탄광, 인포청년탄광을 비롯한 각지 탄광들의 석탄생산자들도 궐기 모임들을 열고 지난해의 투쟁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나타난 편향과 현 실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올해의 석탄생산에서 양양을 일으켜 경제건설을 힘 있게 추동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기계공업성, 구성공장기계공장 종업원 궐기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고 기능공 대렬을 늘이며 제품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장들과 주요공업부문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 보장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건재공업, 철도운수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진행된 궐기모임들에서도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화물수송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의지가 과시되었음.
-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천리마타일공장, 평양화학건재공장에서 진행된 궐기모임들에서는 중요대상건설과 지방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여러 가지 고급건재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데 대한 문제가 언급되었음.
- 룡해운성, 평양철도국, 함흥객화차대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주요공업 부문의 생산 활성화에 필요한 물동량들을 제때에 실어나르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현존수송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기되는 수송수요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당의 은정 속에 마련된 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가 일용품공업성, 잠업비단공업국 종업원궐기모임장소들에 차 넘치었음.
-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평양화장품공장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따라 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며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 나갈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상업성 종업원궐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는데서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고수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자각하고 상업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결의를 다짐하였음.
- 토론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령도 따라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견인 불발의 투쟁정신으로 막아서는 모든 장애와 난관을 격파하고 뜻깊은 올해의 정면 돌파전에서 자력부강의 승전포성을 더욱 힘차게 울려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음.

‘2019년 농업부문총화회의’ 관련 동향

■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자들 평양도착(1.16, 중앙통신·중앙방송)

- 2019년 농업부문총화회의 참가자들이 15일과 16일 평양에 도착하였음.
 - 박태덕 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회의 참가자들을 맞이하였음.
-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는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정면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법을 틀어쥐고 다수확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나가도록 하는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될 것임.

■ 당·정부 간부들, 참가자 숙소 방문(1.16, 중앙통신·중앙방송)

-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16일 2019년 농업부문총화회의 참가자들의 숙소를 방문하였음.
- 당부위원장인 박봉주가 숙소를 찾아 회의 참가자들을 만났음.
- 당부위원장들인 리만건, 리일환, 최휘, 박태덕, 박태성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철,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고인호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함께 숙소를 찾았음.
-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지난해 농업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농업근로자들과 농업과학자, 기술자들을 축하하였음.
-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회의참가자들이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에서 과학농법을 틀어쥐고 다수확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선구자, 참된 애국농민이 될 것을 당부하였음.
- 회의 참가자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잊지 않고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 농사를 더 잘 지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위업을 쌀로써 충직하게 받아들여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었음.

■ 참가자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17, 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이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7일 2019년 농업부문총화회의 참가자들이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음.
-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선 회의참가자들은 김일성·김정일의 태양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리었음.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개최

■ 개 요

- 2019년 농업부문총화회의가 17일 평양에서 열림.(1.18,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은 위원장의 축하 서한 전달

■ 주요 내용

-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 다수확 농장원, 다수확 분조, 다수확작업반, 다수확 농장대렬을 늘여나가는 과정에 창조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고 나타난 결함과 교훈을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정면 돌파전의 첫해인 올해에 당이 제시한 새로운 알곡고지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토의하게 됨.
- 회의에는 당부위원장인 박봉주, 내각총리 김재룡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도당위원장들,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 앞장선 도, 시, 군책임일군들, 지난해 농업생산에서 모범적인 농장원, 농촌초급일군들, 농업과학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축산, 농기계, 관개, 토지정리, 간석지 건설부문의 혁신자들,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농업부문총화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축하서한을 박봉주가 전달하였음.
- 김재룡이 보고를 하였음.
 - 보고자는 이번 농업부문총화회의가 우리 당 농업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농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에 기초하여 올해 농업생산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 지난해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농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높은 알곡생산목표를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였음.
- 지난해 이룩된 성과들은 전적으로 농업전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김정은 위원장의 정력적인 령도와 애국헌신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음.
- 령도와 사랑에 고무된 농업근로자들은 알곡생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쌀로써 당을 결사 보위해 나갈 드높은 정신력과 애국의 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고 말하였음.
- 지난해 농업부문에서는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심중한 결함이 적지 않게 나타났으며 심각한 교훈도 찾았다고 강조하였음.

- 지난해의 투쟁과정에 나타난 결함들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높은 알곡증산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심과 각오를 가지고 분발하고 또 분발할 데 대하여 말하였음.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자력갱생 대진군에 더 큰 박차를 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보고자는 김정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오늘의 정면돌파전에 총매진하여 농업생산에서 보다 큰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당 창건 75돛이 되는 올해를 전례 없는 농업생산성으로 빛내여 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회의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음.
- 회의는 계속됨.

故 황순희 장의식,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

■ 개 요

- 故 황순희 장의식,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1.20,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 주요 내용

- 故 황순희 동지의 장의식이 19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되었음.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과 고인의 유가족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 고인의 령구를 실은 차는 대성산혁명렬사릉을 향하여 떠났음.
-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영결식이 있었음.
-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애도사에서 황순희 동지의 생애는 혁명가로서, 녀성으로서 값 높은 삶을 누려온 한 생이였으며 수령의 사상과 권위, 령도를 백방으로 옹호하고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견결한 전위투사의 한 생이였다고 언급하였음. 황순희 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그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세운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고인의 유해가 항일혁명투사 류경수 동지의 묘에 합장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 명의를 화환과 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묘에 진정되었음.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3일간 진행 후 폐회

■ 주요 내용(1.20,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 2019년 농업부문총화회의가 19일 폐회되었음.
- 3일간에 걸친 회의에서는 많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 과학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였음.
- 토론자들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한 농업전선에서의 다수확 경험들을 적극 교환공유하며 증산의 좋은 예비들을 많이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자기 사업을 분석 총화하였음.
- 현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과학연구종자로 잡고 육종연구사업을 재배기술연구와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각이한 재배형식과 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 수 있는 우량종자들을 육종한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선진적인 다수확농법을 대담하게 도입하고 농사에 실지 이바지할 수 있게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알곡소출을 높임으로써 과학농사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확증한 데 대하여 말하였음.
-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혁신적성과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있는 오늘 농업과학기술 보급은 과학농사를 떠미는 힘있는 추진력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농업과학기술 보급사업을 과학적이고 실리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하여 나라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였음.
-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며 농기계작업소를 농업전선의 병기창으로 꾸리고 농촌기계화초병의 영예와 본분을 지켜 협동벌에 기계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있는 남다른 긍지에 대하여 토로하였음.
-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방침과 두벌농사방침을 결사관철하고 모든 농사일을 알심 있게 하여 지력이 낮고 랭해가 심한 포전들에서 많은 소출을 낸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회의에서는 일부 일군들과 단위들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이 분석 총화되었음.
- 토론자들은 다수확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쌀로써 조선혁명을 보위하며 소중한 사회주의를 지켜갈 결의를 피력하였음.

최동국 상업성 부상, '국가상업체계' 강화 대책 수립 선전

■ 주요 내용(1.20, 중앙통신)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2019.12.)이후 조선에서 국가상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적실한 대책이 세워지고 있음.
- 기자와 만난 상업성 부상 최동국은 내각의 통일적지도 밑에 국가계획위원회 등 연관단위들이 상업성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 그의 말에 의하면 국내산 상품을 비롯한 소비품들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론들이 세워지고 있음.
- 계획화사업이 치밀해지고 상업부문의 불합리한 일부 기구체계를 정리하기 위한 혁신적이며 구체적인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음.

백두산공격정신은 '투철한 자주의식의 발현' 강조

■ 개 요

- 백두산공격정신은 '투철한 자주의식의 발현' 강조(1.21, 노동신문·근로자)
- 제목: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조성된 난국을 정면 돌파하자>

■ 주요 내용

-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는 혁명의 전진도상에 직면한 난관들을 정면 돌파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혁명적 로선을 제시하였음.
 -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이것이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임.
- 시련과 난관을 뚫고 주체혁명위업 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면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함.
 - 백두산공격정신, 여기에 혹독한 도전과 격난을 맞받아 헤치며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온 조선혁명사가 함축되어 있고 사회주의강국 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근본 담보가 있음.
- 백두산공격정신은 오늘의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 전진의 기치임.
 - 조선이 전진한다는 것은 백두의 공격기상으로 돌진한다는 것이며 조선이 이긴다는 것은 백두산정신이 승리한다는 것임.
 - 오늘 당이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조성된 난국을 뚫고 정면돌파전에서 백승을 떨치려는 철의 신념과 의지의 과시로 됨.
 - 정면돌파전은 곧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과의 대결전임.
- 백두산공격정신은 투철한 자주의식의 발현임.
 -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적들에게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기겠다는 불굴의 기개는 백두산의 기상 그대로임.
- 백두산공격정신은 자체의 힘으로 부강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임.
 - 조성된 현 정세는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그 어떤 자금이나 외부적 지원이 아니라 혁명임무를 스스로 걸머지고 수행하려는 책임감과 용기임.

-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전민 총돌격전을 승리에로 이끄는 김정은 위원장의 령도의 자욱은 북방의 건설장에도 새겨져 있음.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대상건설들이 면밀히 추진되었으며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이 현저한 장성 추세를 보인 것은 당의 공격사상이 안아 온 빛나는 결실임.
 - 혁명력사의 제 1페이지에 아로새겨진 삼지연시를 산간문화도시의 표준으로 보란 듯이 전변시켰음.
 - 최단 기간 내에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세웠음.
 - 강원도에서 온 나라의 본보기로 되는 경험들을 계속 창조하고 있음.
-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고 혁명의 부름임.
 - 지금 온 나라가 백두산에로의 답사행군길에 오르고 있음.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업과 생활 전반을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일관시키기 위한 요구임.
-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워 전체 인민을 당중앙과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함께 하는 신념의 강자로 준비시켜야 함.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심화시켜야 함.
-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당의 신념이고 의지임.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 진행

■ 주요 내용(1.22, 중앙통신)

-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가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 내각 총리인 김재룡, 당부위원장 김덕훈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교육기관, 도, 시, 군 당, 정권기관,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 부문, 관계부문 일꾼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음.
- 인민무력상 룡군대장 김정관을 비롯한 무력기관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 회의에서는 지난해 산림복구전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의 성과와 교훈이 분석총화되고 올해의 사업에서 실제적인 양양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지난해 산림복구전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정형을 수록한 다매체편집물 시청이 있었음.
- 지난해 산림복구전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들이 언급되었음.
- 토론들에서는 각지 모체양묘장들에서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산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계속 힘을 넣을 데 대하여 언급되었음.
- 자연보호, 환경보호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며 해당 단위에서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되었음.

북 사회단체들, 당 전원회의 관철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개 요

-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1.22, 중앙통신)

■ 주요 내용

-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1일과 22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 녀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녀맹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음.
- 장춘실 위원장은 보고에서 당 중앙위 12월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정면돌파사상과 전략은 우리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전투적 기치이라고 말하였음. 모든 녀맹일군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받들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동맹사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인민의 참된 축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들이 채택되었으며 정면돌파전 2020년 사회주의 경쟁요강이 발표되었음.

■ 개 요

-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1.23, 중앙통신)

■ 주요 내용

-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3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청년동맹일군들이 참가하였음.
-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음.

- 박철민 위원장 첫째 안건에 대한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나갈 데 대한 전략사상과 실천강령을 명시하였다고 강조하였음. 그는 모든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당 중앙위 12월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도전과 난관들을 맞받아 뚫고 기적적 성과를 이룩하여 김정은시대 청년전위의 영예를 떨쳐나갈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첫째 안건에 대한 결정서초안을 연구토의한데 따라 결정서가 채택되었음.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제시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음.
- 둘째 안건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정면돌파전 2020년 사회주의경쟁요강이 발표되었음.

■ 개 요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1.23, 중앙통신)

■ 주요 내용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3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농근맹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음.
- 김창엽 위원장은 보고에서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는 당의 령도력과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 주체조선의 공격정신을 만천하에 떨친 회의라고 말하였음. 그는 모든 농근맹조직들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당 창건 75돛이 되는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할 데 대하여 언명하였음.
- 결정서 초안을 연구토의한데 따라 결정서가 채택되었음. 회의에서는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제시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음. 이에 대한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으며 결정서가 채택되었음.

■ 개 요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7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1.23, 중앙통신)

■ 주요 내용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7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2일과 23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 직총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직맹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음.
- 주영길 위원장은 첫째 안건에 대한 보고에서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정면돌파사상과 전략, 실천강령은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리익을 끝까지 수호하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불변침로따라 사회주의승리의 날을 앞당겨올 수 있게 하는 대강이라고 말하였음.
- 그는 모든 직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당 창건 75돐을 뚜렷한 경제건설성으로 빛 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상과 투쟁본때를 남김없이 떨쳐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첫째 안건에 대한 결정서 초안을 연구토의되는데 기초하여 결정서가 채택되었음. 회의에서는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제시한 과업을 관철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음.
- 둘째 안건에 대한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으며 결정서가 채택되었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상탐색 및 구조법」 채택

■ 주요 내용(1.23, 중앙통신)

-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해상탐색 및 구조법을 채택하였음.
- 여기에는 해상탐색 및 구조체계, 배보고 및 구조통신, 구조조종과 구조,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규제되어 있음.
-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람의 생명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내각책임제 · 내각중심제 강화 강조

■ 주요 내용(1.23, 노동신문)

- 현시기 조선로동당의 정면돌파전 사상을 구현하여 경제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나가는데서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인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지적하였음.
- 나라의 경제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당정책에 립각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작전을 세우며 그 관철에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힘 있게 조직 동원하여야 하는 것이 내각의 기본임무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음.
 -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적대세력들의 압살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임.
 -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동원 리용하며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는 계획경제의 우월성과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 등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할 바 없이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동력임.
- 사회주의경제의 발전동력이 최대한 발양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담당수행하는 내각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음.
- 경제사령부인 내각이 경제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어 경제건설에서 비약을 안아 와야 우리의 정치사상진지와 군사진지가 더욱 철벽으로 다져지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승리가 앞당겨지게 된다고 강조하였음.

평양시 사상일꾼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 개 요

- 평양시 사상일꾼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8, 중방·노동)
- 제목: <수도의 사상일꾼들이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정면돌파전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 평양시 사상일꾼회의 진행>

■ 주요 내용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일꾼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평양시 사상일꾼회의가 2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 김능오 평양시 당 위원장과 시 안의 당, 근로단체 일꾼들, 당 선전 일꾼들, 모범적인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 5호담당 선전원, 출판물 보급원, 혁명사적부문 강사들, 방송원, 예술선동대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과 당 중앙위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당 사상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결함, 교훈을 분석총화하고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책임을 다해나가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였음.
- 보고를 김봉석 평양시 당 부위원장이 하였음.
 - 정면돌파전이 벌어지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선전선동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사상사업을 집초식으로 벌려 모든 전투장들이 백두산공격정신과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회의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음.
 - 토론자들은 천만인민의 무궁무진한 정신의 힘을 최대한으로 분출시켜나갈 결의를 표명하였음.
- 회의에서는 혁명과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당초급선전일꾼들, 근로자들이 평가되었음.
- 회의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음.
- 회의가 끝난 후 방송선전차들의 출동식이 있었음. 선전차들에서 울려퍼지는 노래들은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에 떨쳐나선 수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열을 백배해주었음.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

■ 개 요

-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1.30, 중앙통신)

■ 주요 내용

-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30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 박용일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음.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면돌파전을 벌릴 데 대한 혁명적 로선은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게 하는 대강으로 된다고 하면서 지지찬동하였음.
- 조선민족의 자주적 존엄을 유린하며 공화국의 번영·발전을 가로막아보려고 최후 발악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제재압살책동을 짓밟개 버리기 위한 투쟁을 거족적 범위에서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천도교청우당 중앙위 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

■ 개 요

- 천도교청우당 중앙위 전원회의, 30일 평양에서 진행(1.30, 중앙통신)

■ 주요 내용

-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30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 리명철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음.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면돌파전을 벌릴 데 대한 혁명적 로선은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게 하는 대강으로 된다고 하면서 지지찬동하였음.
-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전체 천도교인들이 정면돌파전을 힘 있게 벌려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짓밟개버리고 오늘의 자력갱생 대진군에서 조선로동당의 우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음.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 체계로 전환

■ 주요 내용(1.30, 중앙방송·노동신문)

-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날로 커가는 속에 많은 나라에서 긴급대책들이 취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발생 초기부터 강한 예방대책을 세워나감.
- 당과 국가의 긴급조치에 따라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을 선포했음.
- 중앙과 도, 시, 군들에 비상방역지휘부가 조직되었음.
 - 각 지휘부들에서는 국경, 항만, 비행장 등 국경 통과지점들에서 검사 검역사업을 보다 철저히 짜고 들며 외국출장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검병, 검진을 빠짐없이 진행하여 환자, 의진자들을 조기에 적발하고 격리 치료하는 문제, 검사 및 진단시약, 치료약들을 확보하는 문제, 위생선전을 강화하는 문제 등에 대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고 강도높이 전개해 나가고 있음.
 - 성 중앙기관들과 도, 시, 군 인민위원회들에서는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 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위생검역 주력

■ 주요 내용(1.31, 노동신문)

-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세계 여러 나라에 급속히 전파되어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맞게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절대로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서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일군들이 맡고 있는 임무는 매우 중요함.
-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우리는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인구의 평균수명과 전염병 예방률을 비롯한 보건 지표들을 세계선진 수준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 위원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태에 대처하여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지점들에서 위생검역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 들고 있음.
- 외국출장자들에 대한 검병검진사업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경지구 수출입품검사검역소들은 위생방역부문의 일선에 서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로부터 당조직에서는 위원회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위생방역의 전초선에 자신들이 서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국경지역에 달려나가 위생검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보다 실속 있게 진행하도록 정치사업에 힘을 넣었음.
- 또한 아래단위 수출입품검사검역소들에서 해당 지역 비상방역지휘부와의 연계 밑에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사업과 의학적 감시사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음.
- 위원회책임일군들이 평양항공역수출입품검사검역분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 나가 모든 검사검역원들에게 당과 국가의 긴급조치를 알려주고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방도들을 하나하나 토론하였음.
- 특히 평양역수출입품검사검역분소에서 마스크, 장갑, 보호안경을 비롯한 개인보호 수단들, 체온측정설비들의 구비정형과 사용방법을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검사검역원들이 국제열차에 대한 2차위생검역을 진행하여 사소한 징후도 제때에 적발하기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음.
- 국경에 위치한 수출입품검사검역소들에 능력 있는 위원회일군들과 정무원들을 파견하여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국경검사검역사업을 현지에서 강하게 장악지도하도록 하였음.
- 지난 21일 국장 길련수를 비롯한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국경에 위치한 수출입품 검사검역소들에 달려나가 좌지를 차지하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음.

- 검사검역원들부터가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위험성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잘 알고 그에 맞게 검역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도록 하기 위한 긴급협의회들을 진행하였으며 기술자료들을 연구하면서 단 하나의 빈틈도 나타나지 않게 검사검역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작전과 지휘를 짜고 들었음.
- 평안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수출입품검사검역소들에 나간 과장 고경진은 위생검역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었으며 검사검역의 정보화가 실현된 데 맞게 입국자들의 역학통보를 해당 단위들에 신속 정확히 전송하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음.
- 림연옥을 비롯한 정무원들도 중요지점들에 달려나가 현장에서 입국자들에 대한 검병검진 정형을 료해하고 검역일군들이 방역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음.
- 이밖에도 위원회에서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역학분석에 대한 세계적인 의학기술자료들을 수집하고 검사 및 진단시약들을 확보하여 해당 단위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사업 적극 전개

■ 주요 내용(1.31, 중앙통신)

- 조선에서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중앙과 도, 시, 군들에 조직 전개된 비상방역지휘부들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일군들이 국경, 항만, 비행장 등에서 위생검역사업을 강화하여 조선에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음.
- 중앙위생방역소와 국가품질감독위원회에서는 다른 나라에 출장을 갔다오는 성원들과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진 및 검사검역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음.
- 각지의 보건단위와 의료일군들이 예방치료전투를 힘 있게 벌리고 있음.
-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 함경남도인민병원을 비롯한 보건부문의 일군들이 위생선전사업과 검병사업을 강화하여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는 환자들을 제때에 찾아 확진하는 것과 함께 철저히 입원, 격리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 국경과 항을 끼고 있는 평안북도, 함경북도, 남포시 등 해당 지역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은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미리 막기 위한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감기환자를 비롯한 의진자들을 제때에 격리 및 치료할 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짜고 들고 있음.
- 전국의 탁아소들에서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체질적특성에 맞게 부모들과 보육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위생선전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한반도 평화 구상’ 대통령 기고문 비난

■ 주요 내용(1.6, 우리민족끼리)

- 얼마 전 남조선의 청와대는 현 당국자가 지난해 10월말에 어느 한 국제 언론 매체에 게재하였던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평화구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내용을 공개하였음.
- 어처구니없는 것은 여기에서 남조선당국자가 조선반도에서의 대화평화흐름을 마치 저들이 주도하기라도 하는 듯이 자화자찬하면서 철면피하게 놀아댄 것임.
- 말 그대로 가소로운 녀두리, 폰수 없는 추태라고 해야 할 것임.
- 최악으로 치닫던 조선반도정세가 2018년에 극적으로 완화되고 북남관계에서 획기적 전환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이 공인하는 사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신베를린선언》이 전쟁위험을 막아내는데 기여라도 한 것처럼 광고해대고 조선반도정세긴장의 주되는 요인인 합동군사연습과 전쟁장비 반입에 계속 매달리면서 평화를 력설해댄 것은 내외여론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임.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첨단공격형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정세를 악화시켜온 것은 다름 아닌 남조선당국임.
- 지금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지난해 남조선당국이 《힘의 균형》을 떠들어대다가 《안보위기》만 고조시켰다며 당국의 그릇된 《대북정책》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음. 이것은 바로 현 남조선당국자의 이중적인 사고와 행태가 초래한 비극임.
- 사대매국적이며 동족대결적인 《대북정책》에 매달려 모처럼 찾아왔던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망쳐놓은 장본인들이 뼈아픈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지적자랑을 하고 있으니 그 뻔뻔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음.
- 평화번영으로 향한 온 거래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 정세를 침예한 대결국면에 몰아넣은 남조선당국은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를 고달프게 치르게 될 것임.
- 남조선당국은 아전인수격의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고 창피스러운 입방아를 그만 찜는 것이 좋을 것임.

국내 연구기관 및 언론 제기 '3월 위기설' 부정

■ 주요 내용(1.10, 우리민족끼리)

- 최근 남조선의 통일연구원과 아산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정책연구기관들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들이 《북이 충격적인 실제행동에 나서기 전에 내적준비를 면밀히 하고 합당한 명분을 갖추어야 하므로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는 3월전까지는 긴장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느니, 《2월말 3월초에 <한>미합동군사연습이 개시되면 북이 새로운 전략무기시험을 단행할 수 있다.》느니, 《미국이 3대전력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으로 대응하면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어 전쟁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느니 하면서 그 무슨 《3월 위기설》을 내돌리고 있음.
- 이것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에 조선반도정세악화의 책임을 넘겨씌우려는 음흉한 모략소동임.
- 우리가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미국의 강도적 행태에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는 판단과 결심에 따른 것이지 그 무슨 《명분》을 찾아 취하고 말고 할 조치가 아님.
- 더우기 미국의 밑씻개노릇이나 하는 가련한 하수인들이 《<3월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도적인 유화메세지》니, 《창의적방안발굴》이니 하는 꼴을 보면 삶은 소대 가리도 양천대소할 일이 아닐 수 없음.
- 이것은 죄지은 자들이 덴겁하여 내지르는 한갓 비명에 지나지 않음.

우리 해군의 해상 기동훈련 관련 인용 보도

■ 개 요

- 우리 해군의 해상 기동훈련 관련 연합뉴스 인용 보도 및 비난(1.14,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 내용

-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조선동해에서 해상기동훈련을 감행하고 있다.
- 지난 9일부터 강행하고 있는 이 훈련에 해군 1함대사령부소속 호위함을 비롯한 각종 수상함선들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직승기 등이 투입되었음.
- 군부호전광들은 그 무슨 군사대비태세라는 미명하에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 있음.

미군 장비 국내 이동 비난

■ 개 요

- 미 육군1보병사단 소속 2전투여단 장비들의 국내 이동 관련 연합뉴스 인용 비난 (1.16, 노동신문)

■ 주요 내용

-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국이 순환배치의 명목하에 캔사스주에 주둔해 있는 륝군 1보병사단소속 2전투려단 장비들을 남조선으로 이동전개 시키고 있음.
- 11일 2전투려단측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형 탱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장비들의 수송을시작한 데 대해 공표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미 륝군은 2전투려단의 이동전개는 동맹들을 뒤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호언하였음.
-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세계면전에서 늘어놓고 있는 《대화》타령의 기만성을 더욱 적라라하게 폭로시켜줄 뿐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도

■ 주요 내용(1.23, 메아리)

- 20일 남조선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으로 인한 폐염(폐렴)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였음.
- 지난 19일 인천비행장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온 30대의 한 외국인 여성이 검역 과정에 발열이 확인되고 다음날 폐염확진을 받았다고 함.
-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들과 승무원 등 접촉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감염주의를 환기시키었음.

남북 탁구경기에서 '북, 3:1 승리' 보도

■ 개 요

- 남북 탁구경기에서 '북, 3:1 승리' 여자탁구, 제32차 올림픽 참가자격 획득 보도(1.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 내용

- 2020년 국제탁구련맹 단체종목 올림픽 참가자격경기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김송이, 김남해, 차효심, 변송경 선수들이 제32차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음.
- 뽀르뚜갈에서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조선과 인디아, 스웨리에, 중국 홍콩을 비롯한 3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녀 선수들이 올림픽 참가자격을 놓고 치열한 경기를 벌리고 있음.
- 조선선수들은 첫 경기에서 말레이시아팀을 3:0으로 이겼으며 23일 남조선팀과의 경기에서 3:1로 타승함으로써 제32차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남동향

■ 개 요

- 국내 방송을 인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마다 현황 보도
 - KBS·CBS 인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 1명 발생 및 4명 격리 보도(1.26, 중앙통신·중앙방송)
 - CBS 인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50대 남성 발생 보도(1.27, 중앙통신)
 - KBS 인용,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발생 보도(1.28,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내 방송 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 추가 발생 등 현황 보도(1.31, 중앙통신)

■ 주요 내용

- 남조선의 《KBS》, 《CBS》방송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환자가 발생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함. 24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호북성 무한시에 갔다 온 사람들 중 1명이 신형코로나비루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4명이 열이 나고 기침증세를 보여 격리되어 있다고 밝혔음.(1.26, 중통·중방)
-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환자가 또다시 발생하였음.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무한시에 갔다 온 50대의 남성을 검사한 결과 신형코로나비루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음.(1.27, 중통)
-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네 번째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환자가 발생하였음. 50대의 한 남성이 중국 호북성 무한시에서 돌아온 후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의학적 감시를 진행하던 중 26일 이 비루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최종 확인되었음.(1.28, 중통·중방)
- 남조선방송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환자가 추가로 더 발생하여 31일 오후 현재 11명으로 늘어났음.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무한시에서 돌아온 여성에게서 여덟번째로 신형코로나비루스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음. 한편 31일 중국 무한시에서 비행기편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검역한 결과 18명에게서도 발열 등 비루스감염의심증상이 나타났다고 함. 서(1.31, 중통)

국방부 장관 신년사, 합참의장·공군참모총장 대북발언 비난

■ 주요 내용(1.27, 중앙통신)

- 남조선군부가 새해벽두부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분주탕을 피우고 있음.
- 국방부 장관은 1일 남조선군에 하달한 《지휘서신》이라는 데서 연합훈련과 연습을 통한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유지에 대해 떠들어댔음.
- 최근에는 공화국을 로골적으로 걸고들며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군에 의한 《북비핵화와 한반도평화》의 뒤받침을 력설하였음.
-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그 누구에 의한 군사적 위협고조와 적도발시 단호하고 주저 없는 대응에 대해 기염을 토하였는가 하면 최전연지역을 돌아치며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놀음을 벌리였음.
- 공군참모총장 역시 3일 《과거의 아픈 역사를 두번다시 되풀이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전투기를 타고 지난 조선전쟁당시 락동강전선일대 상공에서 지휘비행하는 추태를 부리였음.
- 우리를 겨냥한 군사력증강움직임도 더욱 본격화되고 있음.
- 군부호전광들은 《국방관련점검회의》라는것을 열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밀 유도무기확보와 새로운 전투기,미사일개발도입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을것을 결정 하였으며 이미 시작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스텔스전투기 《F-35A》의 도입을 계속 강행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음.
- 조선동해상에 탄도탄요격미사일시험을 진행할수 있는 수역을 설정하는 한편 《북의 각종 미사일들에 대비한 요격훈련》을 자주 진행할 것이라고 력설하는 등 로골적인 대결자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남조선 육군, 해군, 공군은 일제히 《동계전투준비훈련》과 《해상기동훈련》, 경계비행을 벌려놓고 하늘과 땅, 바다를 전쟁연습터로 만들고 있음.
- 이미 9일부터 조선동해상에서는 남조선해군 1함대소속 각종 함선들과 전투기들이 총포를 쏘아대며 해상기동훈련에 광분하고 있음.

미국 공습에 의한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 보도

■ 개 요

- 미국 공습에 의한 거셈 슬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 보도, 간접비판 (1.6, 중앙방송·노동신문)
- 제목: <유엔헌장을 위반한 미국의 미사일공격 규탄>

■ 주요 내용

- 셰르게이 라브로브 러시아 외무상이 4일 전화 대화에서 이라크의 바그다드시에 있는 한 비행장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하였음.
 - 그들은 중국과 로씨야는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람용하는 것을 반대할 뿐 아니라 모험적인 군사적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였음.
 -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위법행위로 지역 정세가 심히 악화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음.
- 지난 3일 새벽 미국은 이라크의 바그다드시에 있는 한 비행장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였음. 이로 말미암아 현장에 있던 이란 이슬람교 혁명군위대의 쿠드스군 사령관과 이라크 준군사무력의 고위지휘관 등이 사망하였음.

일본 NHK '북 미사일발사 오보' 비난

■ 개 요

- 일본 NHK '북 미사일발사 오보' 비난(1.6, 중앙통신 논평)
- 제목: <무엇을 노린 오보 소동인가>

■ 주요 내용

- 새해를 앞두고 일본의 NHK방송은 《북조선 미싸일이 흑가이도 동쪽 2,000km 해역에 락하》하였다고 보도하였다가 20여분이 지나 《실수》니, 《오보》니 하며 세상을 소란케 하였음.
- 소위 고도기술을 자랑하는 일본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이러한 《오보》소동을 단순히 실수나 착각으로 보기에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흥심이 매우 위험함. 명백히 자국 내에 우리에게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를 기회로 재침을 위한 무력 현대화를 다그치려는 속심의 뚜렷한 발로임.
- 일본반동들이 민심을 역전시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려고 고안해 낸 것이 바로 미싸일 《오보》 소동임.
- 국민들 속에 우리에게 대한 공포증과 반발심을 야기시키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흐려놓으려는 일본반동들의 교활한 술수는 절대로 통할 수 없음.
- 일본이 재침 야망에 들떠 적반하장격으로 놀아대다가는 멸망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임.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 개 요

-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북미대화 복귀 및 생일축하메시지 전달 관련 대미·대남 비난(1.11, 중앙통신)

■ 주요 내용

- 새해벽두부터 남조선 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생일축하 인사를 대긴급 전달한다고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음.
- 남조선 당국이 대긴급통지문으로 알려진 미국 대통령의 생일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임.
- 수뇌들 사이에 친분관계를 맺는 것은 국가들 간의 외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남조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중뿔나게 끼여 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고 해야겠음.
-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와 같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사이의 친분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임. 하지만 그런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또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 보려고 머리를 굴려보는 것은 멍청한 생각임.
-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탁에서 1년반이 넘게 속히우고 시간을 잃었음.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개인》적인 감정이여야 할 뿐, 국무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리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국사를 론하지는 않을 것임.
- 명백한 것은 이제 다시 우리가 미국에 속히워 지난 시기처럼 시간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임.
- 조·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갈 것임.

- 남조선당국은 이런 마당에 우리가 무슨 생일축하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 처럼 감지덕지해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여들었다가 본전도 못챙기는 바보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임.

2020년 북중 친선 설 명절 모임

■ 개 요

- '2020년 북중 친선 설 명절 모임'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1.14,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 내용

- 2020년 조·중 친선 설명절 모임이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조중친선협회와 중국 문화 및 관광부, 조선주재 중국대사관의 공동명의로 14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되었음.
- 모임에는 조중친선협회 위원장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일, 조중친선협회, 관계부문 일군들과 리진군 중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음.
- 참가자들은 중국의 발전모습과 인민들의 생활풍습을 보여주는 사진들, 민족적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 전통음식을 비롯한 중국인민이 창조한 비물질문화유산들을 돌아보았음.
- 그들은 조·중 두 나라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음.

2020년 북중 친선 설 명절 종합공연

■ 개 요

- 중국 예술인들의 '2020년 북중 친선 설 명절 종합공연'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 (1.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 내용

- 중국예술인들의 2020년 조·중 친선 설명절 종합공연이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조중 친선협회와 중국 문화 및 관광부, 조선주재 중국대사관의 공동명의로 16일 봉화 예술극장에서 진행되었음.
- 최홍남 문화성 부상, 박경일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조중친선협회 및 관계 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과 리진군 중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 중국 손님들, 화교들, 조선주재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음.
- 중국 천진시문화예술대표단 예술인들의 공연이 진행되었음.

외무성, 2020년 설 명절 계기 주북 외교단 초청 연회 개최

■ 개 요

- 외무성, 2020년 설 명절 계기 주북 외교단 초청 연회(1.23.) 개최(1.24, 중앙통신·노동신문)

■ 주요 내용

- 2020년 설명절에 즈음하며 외무성이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을 위해 23일 연회를 마련하였음. 연회에는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었음.
- 리선권 외무상을 비롯한 외무성 일군들이 여기에 참여하였음.
- 리선권 외무상은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받들고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데 대하여 언급하고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적 입장을 표명하였음.
- 외교단 단장인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팔레스티나 특명전권대사는 설명절 연회를 마련해준데 대해 외교단을 대표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국가건설과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황 보도

■ 개 요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자료 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황 보도 (1.29, 중앙방송·노동신문)

■ 주요 내용

-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7일 현재 1,771명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염환자로 새로 확진되었음.
- 무한시 당위원회 마국강 서기는 27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염 방지사업과 관련한 보도발표모임에서 시에서 열이 나 치료받는 사람이 하루 동안에만도 1만 5,000명을 넘어섰다고 말하였음.
- 중국의 보건기관은 특별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도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밝혔음. 특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인 무한시가 봉쇄되기 전까지 500만 명이 도시 경외로 떠나간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함.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석과 축전 교환

■ 개 요

-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석과 외교관계 설정 70주년 계기 축전 교환(1.31,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 내용

- 김정은 위원장에게 베트남 응우옌 푸 쩡 주석이 21일 축전을 보내어왔음. 축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나는 월남사회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70돛(1950년 1월 31일-2020년 1월 31일)에 즈음하여 월남 당과 국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당신을 통하여 조선당과 국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냄.
 -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지난 70년간 공고화되었으며 최근년간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있음.
 - 특히 2019년 3월에 진행된 위원장 동지의 월남 공식 친선방문은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협조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되었음.
 - 나는 이 기회에 월남 당과 국가, 인민이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중시하며 그것을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공고·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것을 확언하는 바임.
-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응우옌 푸 쩡 주석에게 31일 축전을 보내었음. 축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70돛에 즈음하여 총비서 동지와 친선적인 월남 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동지적 인사를 보냄.
 - 김일성 수령과 호지명 동지가 마련한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는 지난 70년간 사회주의위업 실현을 위한 공동투쟁 속에서 공고·발전되어왔음.
 - 친선협조관계가 지난해 3월 총비서 동지와 의 상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에 따라 심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함.

주요인물 동정

김정은(국무위원장)

- 1.1. 새해 2020년에 즈음하여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1.2, 중통·중방)
- (미상) 2020년 새해를 맞는 전국 원아들과 소학교 학생들·유치원·탁아소 등 어린이들에게 '식료품' 전달(1.2, 중방)
- 1.1. 새해를 맞아 허종만 '총련' 중앙상임위 의장에게 축전(1.4, 중통)
- 1.4. '미얀마 독립 72주년' 계기 원 민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1.4, 중통·중방)
- (미상) 평안북도 신의주시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1.6, 중통)
- (미상)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 현지지도(1.7, 중통·중방·노동)
- 1.12.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오만 국왕에게 카부스 빈 사이드 알 사이드 오만 전 국왕 별세 조전(1.12, 중통·중방)
- 1.14.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오만 국왕에게 즉위 축전(1.14, 중통·중방)
- 1.15. 손성모('통일애국투사')에게 90세 생일상 전달(1.15, 중통)
- (미상) 황해북도 은파군, 자강도 자성군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1.16, 중통)
- (미상) 평양시 중구역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1.17, 중통)
- 1.17. 故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빈소 조문(1.18, 중방·중통·노동)
- 1.25. 2020년 설명절 기념공연(삼지연극장) 관람(1.26, 중통·중방·노동)
- 1.26. 람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에게 '공화국의 날' 축전(1.26, 중통)
- 1.31. 응우옌 푸 쯩 베트남 주석에게 북-베트남 외교관계 설정 70주년 축전 (1.31, 중통·중방)

고인호(내각 부총리/농업상)

- 1.16.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자 숙소 방문(1.16, 중통·중방)
- 1.17. 2019 농업부문총화회의 개회(평양체육관) 참가(1.18, 중방·중통·노동)
- 1.20. 2019 농업부문총화회의 참가자를 위한 축하공연 관람(1.20, 중통)

김경준(청년동맹 부위원장)

- 1.5. 2020년 설맞이 공연 참가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인민문화궁전) 참석(1.5, 중통·중방)

김경희(前 당 비서)

- 1.25.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2020년 설명절 기념공연(삼지연극장) 관람(1.26, 중통·중방·노동)

김계관(외무성 고문)

- 1.11. 북미대화 복귀 및 생일축하메시지 전달 관련 대미·대남 비난 담화 발표(1.11, 중통)

김능오(평양시 당 위원장)

- 1.5.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평양시 쫄기대회(김일성광장) 참가 및 결의토론(1.5, 중통)
- 1.16.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 준공식 참석(1.16, 중통·중방)
- 1.27. 평양시 사상일꾼회의(인민문화궁전) 참석(1.28, 중방·노동)

김덕훈(당 부위원장)

- 1.5.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평양시 쫄기대회(김일성광장) 참가(1.5, 중통)
- 1.21.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인민문화궁전) 참가(1.22, 중통·노동)

김봉석(평양시 당 부위원장)

- 1.5.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평양시 쫄기대회(김일성광장) 참가 및 사회(1.5, 중통)
- 1.27. 평양시 사상일꾼회의(인민문화궁전) 참석 및 보고(1.28, 중방·노동)

김성일(함경남도 당 위원장)

- 1.7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강원도·평안북도·함경남도·양강도
- ~1.8. 궐기대회 참가(1.8, 중통·1.9, 중방)

김승두(교육위원장)

- 1.22. 전국 학생소년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대 출발모임(만경대혁명학원) 참가 (1.22, 중통·중방)
- 1.22. 제46차 소백수상 전국 청소년학생 체육경기대회 개막식(청춘거리 농구 경기관) 참가(1.22, 중통·중방)

김여정(당 제1부부장)

- 1.25.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2020년 설명절 기념공연(삼지연극장) 관람(1.26, 중통·중방·노동)

김영철(당 부위원장)

- 1.5. 2020년 설맞이 공연 참가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인민문화 궁전) 참석 및 연설(1.5, 중통·중방)
- 1.17.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故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빈소 조문(1.18, 중방·중통·노동)

김영환(양강도 당 위원장)

- 1.7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강원도·평안북도·함경남도·양강도
- ~1.8. 궐기대회 참가(1.8, 중통·1.9, 중방)

김응섭(해외동포사업국 국장)

- 1.5. 2020년 설맞이 공연 참가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인민문화 궁전) 참석(1.5, 중통·중방)

김익성(외교단 사업국 국장)

- 1.15. 주북 중국 대사관 개최 설명절 연회 참석(1.15, 중방)

김일철(내각 부총리/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 1.5.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평양시 궐기대회(김일성광장) 참가(1.5, 중통)
- 1.16.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자 숙소 방문(1.16, 중통·중방)
- 1.17. 2019 농업부문총화회의 개회(평양체육관) 참가(1.18, 중방·중통·노동)
- 1.20. 2019 농업부문총화회의 참가자를 위한 축하공연 관람(1.20, 중통)

김재룡(내각 총리)

- 12.31.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공연(삼지연관현악단 극장) 관람(1.1, 중통·노동)
- 1.1. 김정은 위원장 새해 2020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동행(1.2, 중통·중방)
- 1.5.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평양시 궐기대회(김일성광장) 참가(1.5, 중통)
- (미상) 김정은 위원장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 현지지도시 맞이(1.7, 중통·중방·노동)
- (미상)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 요해(1.7, 중통·중방)
- 1.16. 로버트 아벨라 신임 몰타 수상에게 축전(1.17, 중통·중방)
- 1.17. 2019 농업부문총화회의 개회(평양체육관) 참가 및 보고(1.18, 중방·중통·노동)
- 1.20. 2019 농업부문총화회의 참가자를 위한 축하공연 관람(1.20, 중통)
- (미상)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 △영유광산 △보산제철소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 현지 요해(1.21, 중통)
- 1.21.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인민문화궁전) 참가(1.22, 중통·노동)
- 1.31.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총리에게 북-베트남 외교관계 설정 70주년 축전(1.31, 중통·중방)

김정관(인민무력상)

- 1.21.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인민문화궁전) 참가(1.22, 중통·노동)

김정수(체육성 제1부상)

- 1.22. 제46차 소백수상 전국 청소년학생 체육경기대회 개막식(청춘거리 농구 경기관) 참가(1.22, 중통·중방)

김창엽(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장)

- 1.23. '농근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평양) 참가 및 보고(1.23, 중통)

김형준(당 부위원장)

- 1.17.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故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빈소 조문(1.18, 중방·중통·노동)
- 1.29. '쿠바 혁명승리 61주년' 계기 주북 쿠바 대사 개최 연회(대동강외교단회관) 참석(1.29, 중통·중방)

김형훈(보건성 부상)

- 1.2.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반향 발표(1.2, 중방)

리경호(기계공업성 부상)

- 1.2.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반향 발표(1.2, 중방)

리길성(외무성 부상)

- 1.15. 주북 중국 대사관 개최 설명절 연회 참석(1.15, 중방)
- 1.26. '인도 공화국의 날' 계기 주북 인도 대사 개최 연회(대동강외교단회관) 참석(1.26, 중통·중방)

리룡남(내각 부총리)

- 1.21.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인민문화궁전) 참가(1.22, 중통·노동)

리만건(당 부위원장)

- 1.16.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자 숙소 방문(1.16, 중통·중방)
- 1.17.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故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빈소 조문(1.18, 중방·중통·노동)
- 1.17. 2019 농업부문총화회의 개최(평양체육관) 참가(1.18, 중방·중통·노동)
- 1.20. 2019 농업부문총화회의 참가자를 위한 축하공연 관람(1.20, 중통)

리명철(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 1.30. '천도교청우당' 중앙위 전원회의 참석 및 보고(1.30, 중통)

리병철(당 부위원장)

- 1.17.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故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빈소 조문(1.18, 중방·중통·노동)

리선권(외무상)

- 1.23. 2020년 설명절 계기 외무성 개최 외교단 초청 연회 참석 및 연설(1.24, 중통·노동)
- 1.31. 팜 빔 밉 베트남 외교 장관에게 북-베트남 외교관계 설정 70주년 축전(1.31, 중통·중방)

리설주

- 1.17.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故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빈소 조문(1.18, 중방·중통·노동)
- 1.25.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2020년 설명절 기념공연(삼지연극장) 관람(1.26, 중통·중방·노동)

리일환(당 부위원장)

- 1.16.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자 숙소 방문(1.16, 중통·중방)
- 1.17.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故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빈소 조문(1.18, 중방·중통·노동)
- 1.25.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2020년 설명절 기념공연(삼지연극장) 관람(1.26, 중통·중방·노동)

리정남(당 부부장)

- (미상) 김정은 위원장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 현지지도시 동행(1.7, 중통·중방·노동)

리철호(석탄공업성 부상)

- (미상) 올해 석탄공업성의 △국가과학기술 발전계획 6건 수행 집중 △채탄·굴진막장 기계화 박차 △제남탄광 등 벨트콘베어 개건 등 '석탄생산 강화' 피력(1.11, 중방)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1.20. '4.15기술혁신돌격대운동('80.1.19, 김정일 제시)' 개시 40주년 기념보고회(중앙노동자회관) 참가 및 기념보고(1.21, 중방·중통·노동)

마원춘(국무위원회 설계국 국장)

(미상) 김정은 위원장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 현지지도시 동행(1.7, 중통·중방·노동)

문경덕(평안북도 당 위원장)

1.7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강원도·평안북도·함경남도·양강도
~1.8. 궐기대회 참가(1.8, 중통·1.9, 중방)

박경일(북중친선협회 위원장/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1.14. 2020년 북중 친선 설명절 모임(대동강외교단회관) 참석(1.14, 중통·중방)
1.15. 주북 중국 대사관 개최 설명절 연회 참석(1.15, 중방)
1.16. 중국 예술인들의 2020년 북중 친선 설명절 종합공연(봉화예술극장) 관람
(1.17, 중통·중방)

박명국(외무성 부상)

1.29. '쿠바 혁명승리 61주년' 계기 주북 쿠바 대사 개최 연회(대동강외교단회관)
참석(1.29, 중통·중방)

박봉주(당 부위원장)

1.16.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자 숙소 방문(1.16, 중통·중방)
1.17.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故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빈소 조문(1.18, 중방·중통·노동)
1.17. 2019 농업부문총화회의 개회(평양체육관) 참가 및 김정은 축하서한 전달
(1.18, 중방·중통·노동)
1.20. 2019 농업부문총화회의 참가자를 위한 축하공연 관람(1.20, 중통)

박순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1.29. '쿠바 혁명승리 61주년' 계기 주북 쿠바 대사 개최 연회(대동강외교단회관) 참석(1.29, 중통·중방)

박용일(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 1.30. '사민당' 중앙위 전원회의 참석 및 보고(1.30, 중통)

박정근(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 1.1.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반향 발표(1.1, 중방)

박정남(강원도 당 위원장)

- 1.6. 강원도수산사업소 준공식 참석(1.7, 중통·중방)
- 1.7.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강원도·평안북도·함경남도·양강도
- ~1.8. 쫄기대회 참가(1.8, 중통·1.9, 중방)

박철민(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장)

- 1.21. 당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청년전위 쫄기대회(김일성경기장) 참가 및 결의토론(1.22, 중통·노동)
- 1.22. 전국 학생소년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대 출발모임(만경대혁명학원) 참가 및 보고(1.22, 중통·중방)
- 1.23.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평양), 참가 및 안건보고(1.23, 중통)

박태덕(당 부위원장)

- 1.15.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자들 평양도착시 맞이(1.16, 중통·중방) ~16.
- 1.16.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자 숙소 방문(1.16, 중통·중방)
- 1.17.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故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빈소 조문(1.18, 중방·중통·노동)
- 1.17. 2019 농업부문총화회의 개회(평양체육관) 참가(1.18, 중방·중통·노동)
- 1.19. 농업부문 당 및 국가표창 수여모임(평양체육관) 참가(1.20, 중방·중통·노동)
- 1.20. 2019 농업부문총화회의 참가자를 위한 축하공연 관람(1.20, 중통)

박태성(당 부위원장)

- 1.16.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자 숙소 방문(1.16, 중통·중방)
- 1.17.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故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빈소 조문(1.18, 중방·중통·노동)
- 1.20. '4.15기술혁신돌격대운동('80.1.19, 김정일 제시)' 개시 40주년 기념보고회 (중앙노동자회관) 참가(1.21, 중방·중통·노동)

양명규(함경남도 당 부위원장)

- 1.19. 김정은 흥남대경수산종합기업소 현지지도 10주년 기념보고회 참가(1.20, 중방·노동)

장길룡(화학공업상)

- (미상) 김정은 위원장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 현지지도시 맞이(1.7, 중통·중방·노동)

장춘실(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장)

- 1.21. '여맹' 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평양) 참가 및 안건보고
~22. (1.22, 중통)
- 1.22. 당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여맹 꺾기대회(개선문광장)' 참가 및 결의
토론(1.23, 중통·중방·노동)

전광호(내각 부총리)

- 1.20. '4.15기술혁신돌격대운동('80.1.19, 김정일 제시)' 개시 40주년 기념보고회
(중앙노동자회관) 참가(1.21, 중방·중통·노동)

조용원(당 제1부부장)

- (미상) 김정은 위원장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 현지지도시 동행(1.7, 중통·중방·
노동)
- 1.25.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2020년 설명절 기념공연(삼지연극장) 관람(1.26,
중통·중방·노동)

주영길(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장)

- 1.22. 당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직맹 꺾기대회(천리마구역)' 참가 및 결의
토론(1.23, 중통·중방·노동)
- 1.22. '직총' 중앙위원회 제7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평양) 참가 및 안건
~23. 보고(1.23, 중통)

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 1.16.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 준공식 참석(1.16, 중통·중방)

최룡해(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 12.31.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공연(삼지연관현악단 극장) 관람(1.1, 중통·노동)
- 12.31.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공연 '백두산 축복안고 설눈아 내려라'(만경대학생 소년궁전) 관람(1.1, 중앙통신·중앙방송)
- 1.1. 김정은 위원장 새해 2020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동행(1.2, 중통·중방)
- 1.19. 농업부문 당 및 국가표창 수여모임(평양체육관) 참가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전달(1.20, 중방·중통·노동)
- 1.19. 故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장의식(평양 서장회관) 참가(1.20, 중통·중방·노동)
- (미상) 황해제철연합기업소·사리원닭공장 현지 요해(1.20, 중통·중방)
- 1.25.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2020년 설명절 기념공연(삼지연극장) 관람(1.26, 중통·중방·노동)

최흥남(문화성 부상)

- 1.16. 중국 예술인들의 2020년 북중 친선 설명절 종합공연(봉화예술극장) 관람(1.17, 중통·중방)

최휘(당 부위원장)

- 1.16.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자 숙소 방문(1.16, 중통·중방)
- 1.16.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창립 74주년'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청년 중앙회관) 관람(1.16, 중통·중방)
- 1.17.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故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빈소 조문(1.18, 중방·중통·노동)
- 1.21. 당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청년전위 궐기대회(김일성경기장) 참가(1.22, 중통·노동)
- 1.22. 당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직맹 궐기대회(천리마구역)·여맹 궐기대회(개선문광장)' 참가(1.23, 중통·중방·노동)
- 1.22. 전국 학생소년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대 출발모임(만경대혁명학원) 참가(1.22, 중통·중방)

- 1.22. 제46차 소백수상 전국 청소년학생 체육경기대회 개막식(청춘거리 농구 경기관) 참가(1.22, 중통·중방)
- 1.24. 당 전원회의 관철 위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궐기대회(청산리) 진행(1.25, 중통)

한종혁(조선농업근로자동맹 부위원장)

- 1.26. '농근맹'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출발모임(삼지연 대기념비) 참가 및 보고(1.27, 중통·중방)

현송월(당 부부장)

- 1.25.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2020년 설명절 기념공연(삼지연극장) 관람(1.26, 중통·중방·노동)

황상호(체육성 부상)

- 1.2.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반향 발표(1.2, 중방)

월간 보도일지

1.1.(수)

- 대내**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4일 회의 진행 및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지도 기관 성원들과 기념촬영(중앙통신·중앙방송)
 -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공연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에서 진행(중앙통신)
 - 박정근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반향 보도(중앙방송)
 - 2020년 새해 관련 동향
 - *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공연 '백두산 축복안고 설눈아 내려라'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 새해를 맞이한 학생소년들, 평양 곳곳에서 민속놀이 진행(중앙통신)
 - * 새해를 맞으며 개별우표 1종 발행(중앙통신)
 - * 북 체류 해외동포, 새해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 특이동향 없음.

대외 ○ 특이동향 없음.

1.2.(목)

- 대내**
- 김정은 위원장, 신년 계기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위원장, 2020년 새해를 맞는 전국 원아들과 소학교 학생들·유치원·탁아소 등 어린이들에게 '식료품' 전달(중앙방송·노동신문)
 - 황상호 체육성·김형훈 보건성 부상 등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과업 관철 반향 보도(중앙방송)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 보도(중앙방송)
 - 미국의 이라크공습(12.29.)과 이라크 정부의 '주권침해 행위' 규정 성명 등 보도(중앙방송)
 - 기타동향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신년 계기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중앙통신)

1.3.(금)

- 대내**
- '전원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면돌파전'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당 창건 75돌을 맞는 올해에 정면 돌파전으로 혁명적 진군의 보폭을 크게 내짚자)
 - 성·중앙기관 정무원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올해 첫 파철 집중수송(중앙방송)
 - 평양시 일꾼들, 강남군 농촌들에 거름 수천t 지원(중앙방송)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철산봉에서 40만산 대발파 진행(중앙통신)
 - 개선청년공원 등 각 유희장에서 새해맞이 보도(중앙통신)

대남 ○ 특이동향 없음.

대외 ○ 기타동향
- 콩고 주재 북 특명전권 대사, 콩고 대통령 접견(중앙통신)

1.4.(토)

대내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94호(1.3.), '양강도 삼지연시 거리 이름을 정함에 대하여' 발표(중앙통신·중앙방송)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은 정면 돌파전"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

대남 ○ 특이동향 없음.

대외 ○ 기타동향
- 김정은 위원장, 새해를 맞아 허종만 '총련' 중앙상임위 의장에게 축전(중앙통신)
- 김정은 위원장, 윈 민 미얀마 대통령에게 '독립 72주년'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중앙상임위·재중조선인총연합회, 새해를 맞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중앙통신)
- '총련' 조직과 단체들, 새해를 맞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중앙통신)
- '반제민전' 중앙위, 새해를 맞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중앙통신)

1.5.(일)

대내 ○ '당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평양시 쫓기대회 진행(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은 위원장의 '정면돌파전(당 전원회의)' 필요성 및 "현시기 초미의 과업은 경제건설"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정면돌파전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
○ 평양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8백여t 파고철과 지원물자' 전달(중앙방송)

대남 ○ 특이동향 없음.

대외 ○ 김정은 위원장, 2020년 설맞이 공연 참가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 마련(중앙통신·중앙방송)
○ 자본주의 사회는 "최악의 불평등사회"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자본주의 제도의 반동성은 가리울 수 없다)

1.6.(월)

대내 ○ 김정은 위원장, 평안북도 신의주시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 당 전원회의 보고 중 '주체의 힘, 내적 동력 강화' 강조, "군사력 질량적 계속 강화" 촉구(중앙통신·노동신문/주체적 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
○ 당 전원회의 보고 중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강화, 투쟁노선과 방략 제시' 강조, 김정은 '영도력' 찬양(중앙통신·노동신문, 천하제일 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의 끝없는 영광)
○ 강원도농업과학연구소·원산남새연구분소 개건 준공식 진행(중앙방송)

대남 ○ '한반도 평화 구상' 기고문 비난 "아전인수격 궤변"(우리민족끼리)

- 대외 ○ 미국 공습에 의한 거셈 슬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 보도, 간접비판(중앙방송·노동신문)
- 일본 NHK '북 미사일발사 오보' 비난(중앙통신/논평, 무엇을 노린 오보소동인가)

1.7.(화)

- 대내 ○ 김정은 위원장, 순천린(인)비료공장 건설현장 공개 활동(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재룡 내각 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 강원도수산사업소 준공식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학생소년들의 2020년 설맞이 공연 '백두산 축복 안고 설눈아 내려라' 연일 진행(중앙방송)

-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특이동향 없음.

1.8.(수)

- 대내 ○ '당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강원도·평안북도·함경남도·양강도 궐기대회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정면돌파전으로 당 전원회의 과업 결사관철' 독려, "제재해제나 정세완화에 대하여 사소한 미련도 가지지 말 것" 강조(노동신문/당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 과업 관철에 총매진하자)
- 강원도 원산시 송천지구에 김치공장 새로 건설(중앙방송)
-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개건 현대화 공사 마감단계 추진 및 삼지연 꾸리기 '3단계공사' 주력(중앙방송)

- 대남 ○ 통일부 교류협력 확대 발표 비난, "개점 휴업기관의 상품광고"(메아리)
- 경기도 연천군에서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연천군에서 지금까지 24건 발병' 등 CBS 방송 인용 보도(중앙통신)

- 대외 ○ 아시아태평양지역 등에서의 '위안부 범죄' 대일 비난, '과거사 문제 청산' 촉구(중앙통신/논평, 최악에 찬 과거는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 주북 쿠바 대사 '쿠바 혁명승리 61주년' 계기 평양산원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1.9.(목)

- 대내 ○ '당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평안남도·황해남도·황해북도·자강도 궐기대회 진행(중앙통신)
- 오중흡의 '수령 결사옹위' 사례 소개, 김정은 호위 강조(노동신문)
- 양덕온천문화휴양지 10일 개점, 평양고려국제여행사에서 예약접수(중앙방송)
- 학생소년들의 첫 기 겨울철 야영시작모임 진행(중앙통신)

-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한성조약' 체결 135주년 계기 "불평등 조약" 비난 및 과거사 문제 청산 촉구(중앙통신·노동신문/한성조약을 통해 본 간악한 일본의 과거죄악)

1.10.(금)

- 대내** ○ '당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함경북도·남포시·개성시·나선시 쫓기대회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 주민들, 당 전원회의의 기본 사상·정신 학습 진행(중앙통신)
- 마식령스키장, 8일부터 스키관광 시작(중앙방송)
- 민족유산보호국, 비물질문화유산 새로 등록(중앙방송)

- 대남** ○ '3월 위기설' 부정 및 "모락소동" 비난(우리민족끼리)

- 대외** ○ 기타동향
- 카타르 국왕, 김정은 위원장의 카타르 독립절 축전에 대한 답전(중앙통신)

1.11.(토)

- 대내** ○ 특이동향 없음.

-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북미대화 복귀 및 생일축하메시지 전달 관련 대미·대남 비난(중앙통신)

1.12.(일)

- 대내** ○ '정면 돌파전사상의 정당성과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내부 결속' 강조(노동신문/논설, 혁명의 활로를 밝혀주는 우리 당의 정면 돌파사상)
- 어량천저수지 완공 보도, "자력갱생의 정신력으로 기적을 창조" 선전(노동신문)
- 황해남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용매도간석지 건설 주력(중앙방송·노동신문)
- 강원도, 원산시 세길과 송천지구의 넓은 면적에 온실농장 건설 주력(중앙방송·노동신문)
- 새해 첫 체육의 날(매월 둘째 주 일요일) 계기 위원회·성·중앙기관 집단달리기 등 각지 대중체육활동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미국의 공습, 이란의 핵합의 중단 및 미사일공격 등 미국 - 이란 간 사태 동향 보도(노동신문/최근 중동지역정세)

1.13.(월)

- 대내** ○ 주요공업부문 노동계급의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 강조(노동신문/사설, 주요공업부문에서부터 정면 돌파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자)

- 대남** ○ 참여연대 등 100여 개 단체의 '우리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기자회견 관련 KBS 방송 인용 보도(중앙방송·노동신문)

- 대외** ○ 자본주의사회 출판보도물에 대하여 "어용나팔수에 불과" 비난(노동신문/근로대중의 자주 의식을 마비시키는 자본주의 출판보도물)
- 기타동향
- 김정은 위원장, 오만 국왕 별세에 조전(중앙통신·중앙방송)

1.14.(화)

- 대내**
- 양덕온천문화휴양지·온천요양지 봉사 시작 안내 및 홍보(중앙통신)
 - 남포섬물공장 완공,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 순천석회석광산 채광장, 30만산 대발파 성과적 진행 및 '시멘트 주원료 다량 채굴·운반 실현가능' 보도(중앙방송·노동신문)
- 대남**
- 우리 해군의 해상 기동훈련 관련 연합뉴스 인용 보도 및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
- 대외**
- '2020년 북중 친선 설 명절 모임'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의 '해상자위대 호르무즈 파병 공포' 비난(중앙통신/논평/기만적인 평화와 안전타령을 견어치우라)
 - 기타동향
 - 김정은 위원장, 새 오만 국왕에게 즉위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1.15.(수)

- 대내**
- 김정은 위원장, 손성모(통일애국투사)에게 90세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 당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각 도(직할시)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노동신문)
 - 원산김치공장 준공식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주북 중국 대사관, 설 명절 계기 연회 개최(중앙방송)
 - 북중 친선 영화감상회, 대동문영화관에서 진행(중앙방송)
 - 일본 헌법 개정 움직임 비난(중앙통신/논평, 헌법 개정은 자멸의 길이다)

1.16.(목)

- 대내**
- 김정은 위원장, 황해북도 은파군·자강도 자성군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 주체적 힘, 내적동력 강화 강조(노동신문/사설, 우리의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 당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궐기모임,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 단위들에서 진행(노동신문)
 -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자들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당·정부 간부들,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자 숙소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 준공식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창립 74주년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대남**
- 미 육군1보병사단 소속 2전투여단 장비들의 국내 이동 관련 연합뉴스 인용 비난(노동신문)
- 대외**
- '김정은 위원장의 강령적 과업을 관철'을 위한 '총련 일꾼들의 모임', 도쿄 조선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기타동향
 -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주석, 김정은 위원장의 '쿠바 혁명승리' 61주년 축전에 답전(중앙통신·중앙방송)

1.17.(금)

- 대내**
- 김정은 위원장, 평양시 중구역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 “백두의 행군 길은 백전불패의 길”, ‘백두산 정신’ 무장 강조(노동신문/사설, 필승의 신심 드높이 백두의 행군 길을 곳곳이 이어나가자)
 -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자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중앙통신)
 - 성·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내 농장들에서 새해 첫 ‘금요노동’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양 시민들,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 등 탄광부문에 ‘지원물자’ 전달(중앙방송·노동신문)
 - 오석산화강석광산, 매일 2배 이상 생산실적 및 16일까지 ‘1월 계획 140%’ 초과 완수(중앙방송)
 - 서두발전소 매일 계획 115% 이상 초과 수행 및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등 증산 투쟁 소식 보도(중앙방송)
 - 백화점들에서 원산구두공장 생산 ‘매봉산’ 겨울 신발 인기리 판매(중앙통신)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중국 예술인들의 ‘2020년 북중 친선 설 명절 종합공연’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 방위성의 미 공군기지 이설공사 대폭연장 계획을 “일본의 친미굴종정책”이라고 비난(중앙통신/친미굴종 정책의 비참한 후과)
 - 기타동향
 - 김재룡 내각 총리, 신임 몰타 수상에게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1.18.(토)

- 대내**
- 김정은 위원장, 故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빈소 조문(중앙방송·중앙통신)
 - 당, 정권,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일꾼들, 故 황순희 빈소 조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와 무관들 및 체류 중인 해외동포들, 故 황순희 빈소 조문(중앙통신·중앙방송)
 -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개최, 김정은 위원장의 축하 서한 전달(중앙방송·중앙통신)
 - 농업·과학·교육·보건·국토관리·문학예술·체육부문,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위한 궤기모임 진행(중앙통신)

대남 ○ 국방부 장관 신년사 발언 관련 비난(려명)

- 대외** ○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 비난(중앙통신/논평, 우주는 침략국가의 활무대가 될 수 없다)

1.19.(일)

- 대내**
- 내금강 명승지 관리소, 참관도로 보수 등 ‘명승지 보존관리’ 성과 보도(중앙방송)
 - 평양미술대학,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을 위한 선전화 제작(중앙방송)

대남 ○ 우리군의 글로벌호크/F-35A 도입 관련,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인용 보도(중앙통신)

- 대외** ○ 자본주의 사회, 과학기술 발전에도 ‘착취적·약탈적’ 본성 불변 주장(노동신문/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의 처지는 달라질 수 없다)

1.20.(월)

- 대내**
- 故 황순희 장의식,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해제철연합기업소·사리원닭공장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3일간 진행 후 폐회(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 당 및 국가표창(알곡생산·감자농사 다수확) 수여모임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자를 위한 축하공연 진행(중앙통신)
 - 김정은 위원장 흥남대경수산종합기업소 현지지도 10주년 기념보고회(중앙방송)
 - 양덕운천문화휴양지 소개 및 '김정은의 인민사랑의 결정체' 선전(중앙통신)
 - 최동국 상업성 부상, 전원회의 이후 '국가상업체계' 강화 위한 대책 수립 선전(중앙통신)
 - 조양탄광, 매일 석탄생산 계획 103% 초과 생산(중앙방송)

대남 ○ 특이동향 없음.

대외 ○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주의는 '온갖 사회악의 근원' 비난(노동신문)

1.21.(화)

- 대내**
- 백두산공격정신은 '투철한 자주의식의 발현' 강조(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백두산공격정신으로 조성된 난국을 정면 돌파하자)
 - 김재룡 내각 총리, 순천린비료공장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 현지 요해(중앙통신)
 - '4.15기술혁신돌격대운동(80.1.19.)' 개시 40주년 기념보고회(중앙노동자회관) 진행(중앙방송·중앙통신)
 - '4.15기술혁신돌격대운동' 개시 40주년 기념 전국 기술혁신경기 총화모임(중앙방송·중앙통신)
 - 김형훈 보건성 부상, 전원회의 과업 관철 관련 의료분야 '물질 기술적 토대' 강화 선전(중앙통신)
 - 철도운수부문, 기존 분기기 침목을 무볼트 콘크리트침목으로 교체(중앙통신)
 -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자들, '조선혁명박물관·전승기념관' 방문 및 김일성 부자 동상 참배(중앙방송)

대남 ○ 특이동향 없음.

대외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전원회의 과업 관철 의지 표명(중앙통신)

1.22.(수)

- 대내**
-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인민문화궁전) 진행(중앙통신)
 -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중앙통신)
 - 전원회의 과업 관철 위한 청년전위 궤기대회(김일성경기장) 진행(중앙통신)
 - 전원회의 과업 관철 고무 추동하는 선전화 제작(중앙통신)
 - 원산구두공장 매봉산 겨울구두 등 북 제품들, '우수 품질'로 인기(중앙통신)
 - '제46차 소백수상 전국 청소년학생 체육경기대회' 개막식(청춘거리 농구경기관)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 특이동향 없음.

대외 ○ 미국 특수임무 부대 태평양 배치 등 최근 '미국 군사적 움직임' 비난(중앙통신/세계 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 움직임)
○ '고종황제 독살 사건' 관련 대일 비난(중앙통신)
○ 과거 '민족고전 20만여 권 압수·소각' 관련 대일 비난 (중앙통신)

1.23.(목)

대내 ○ 청년동맹(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중앙통신)
○ 농근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중앙통신)
○ 직총(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7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상탐색 및 구조법」 채택(중앙통신)
○ 전원회의 과업 관철 '직맹·여맹' 궤기대회 각각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고읍협동농장에 거름 200여t 및 소농기구 전달 등 각지 청년 동맹 일꾼 농촌지원(중앙방송)

대남 ○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진자 발생 보도(메아리)

대외 ○ 외무성, 2020년 설 명절 계기 주북 외교단 초청 연회 개최(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일본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및 폐렴치료 보도(중앙방송)

1.24.(금)

대내 ○ 김정은 위원장, 경성군 오상리·온대진리·금야군 범포리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중앙 방송·중앙통신)
○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 강화 강조, '경제발전 동력 위해 내각 역할 중요'(노동신문)
○ 평양 낙랑금강설비전시장 각종 기계제품 전시 등 첨단기계제품 개발·보급 위한 사업 활발히 진행(중앙통신)
○ 국가우표발행국, 소나무·참대·해당화 형상 개별우표 3종 발행(중앙통신)

대남 ○ 남북 탁구경기에서 '북, 3:1 승리', 제32차 올림픽 참가자격 획득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대외 ○ 주중 북 대사관, 설 명절 계기 연회 개최(중앙방송)
○ 남승우 총련 중앙상임위 부의장, 전원회의 제시 '혁명적 노선지지' 담화 발표(중앙통신)

1.25.(토)

대내 ○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궤기대회 진행(중앙통신)
○ 평양시와 각 도 근로단체 일꾼들과 동맹원들의 연합 궤기대회 진행(중앙통신)
○ 전원회의 제시 '정면돌파전' 노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정면돌파전의 승산은 확고하다)
○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예술공연 진행 등 각지에서 설 명절 맞이(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 특이동향 없음.

대외 ○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 실태 보도(중앙방송)

1.26.(일)

- 대내** ○ 김정은 위원장, 삼지연극장에서 '설 명절 기념공연' 관람(중앙통신·중앙방송)
○ '3관 편성 관현악단' 조직 5주년 기념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진행(중앙통신)
- 대남** ○ KBS·CBS 인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 1명 발생 및 4명 격리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 대외** ○ 김정은 위원장, 인도 대통령에게 '인도 공화국의 날' 축전(중앙통신)
○ 주북 인도 대사, '인도 공화국의 날' 연회 개최(중앙통신·중앙방송)
○ 태국 보건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염성 폐렴 차단 위한 중국인 관광객 검사 조치 강화 보도(중앙방송)

1.27.(월)

- 대내** ○ 김정은 위원장, 림송희 묘향무역국 산하단위 노동자 등 조선혁명박물관 개건에 적극 기여·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당 조직, 정면돌파전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정치사업 강화 강조(노동신문/정면돌파전은 거창한 변혁과정)
○ 농업부문, 총궐기·총매진 독려(노동신문/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
○ 전국 농근맹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출발모임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대남** ○ 국방부 장관 신년사와 합참의장·공군참모총장 대북발언 비난(중앙통신)
○ CBS 인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50대 남성 발생 보도(중앙통신)
- 대외** ○ 미일 공동강하훈련·개헌 움직임·자위대 활동범위 확대 관련 대일 비난(중앙통신/군국 주의적 재침야망은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1.28.(화)

- 대내** ○ 평양시 사상일꾼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방송·노동신문)
○ 모든 일꾼·당원·근로자, '백두의 혁명전통을 필승의 무기로 정면돌파전에서 영웅적 위훈 창조' 강조(노동신문/백두의 혁명전통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멸의 혁명전통)
○ 신의주화장품공장, 향수 생산 공정 새로 확립(중앙방송)
- 대남** ○ KBS 인용,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발생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 MBC 인용, '강원도 화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 및 '강원도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관련 보도(중앙통신)
- 대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각국으로 전파 등 관련 상황 보도(중앙방송)

1.29.(수)

- 대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주요증상·원인·전염경로·예방 대책 소개(노동신문)
○ 전원회의 제시 정면돌파전에서 일꾼들의 책임적 선도 및 각성과 분발 촉구(노동신문/일꾼들은 정면돌파전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자)
○ 강원도정신은 '자력갱생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본보기 정신' 강조(노동신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218호(1.22.), 평양건재기술대학 등 63개 단위에 '모범준법 단위' 칭호 수여(중앙방송)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자료 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황 보도(중앙방송·노동신문)
 - 중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위한 방역대책 소개(중앙방송)
 - 미국·호주에서 5번째 감염자 확인, 말레이시아의 중국인 임시적 입국 금지조치 등 '세계적인 감염자 증가 및 전파 차단 조치' 보도(중앙방송)
 - 주북 쿠바 대사, '쿠바 혁명승리 61주년' 연회 개최(중앙통신·중앙방송)

1.30.(목)

- 대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중앙방송·노동신문)
 - 각급 및 각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활동 진행(노동신문)
 -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
 - 천도교청우당 중앙위 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
 - '내부와해 책동 무력화, 일심단결 강화' 위한 법규범의 수정보충 필요성 역설(노동신문)
 - 농업성, 모든 저수확지들의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사업 적극 추진(중앙통신)
 - 왕재산예술단 무용종합공연, 연일 성황리에 진행 선전(중앙통신)
 - 제31차 만경대상 국제마라톤경기대회, 4.12. 진행 예정 보도(중앙통신)

대남 ○ 특이동향 없음.

- 대외**
- 영국·프랑스·독일의 과거청산 활동 거론, 과거사문제 관련 대일 비난(중앙통신/과거청산은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일본의 숙명이다)

1.31.(금)

- 대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동향
 -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위생검역 주력(노동신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사업 적극 전개(중앙통신)
 - 함흥시 위생방역소, 비상방역체계 진입(중앙방송)
 - 중구역 위생방역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사업 노력(중앙방송)
 - 원산시 제1인민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생방역대책 수립(중앙방송)
 - 평양시 모란봉 구역 전승종합진료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사업 진행(중앙방송)
 - 경소마그네시아 보온벽 부재 등 질 좋은 건재품 생산, 건설에 도입(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16호(1.22.),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등 모범적 단위에 26호모범기대영예상 수여(중앙방송)
 - 학생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대, 강계시 도착 및 강계객주집·강계우편국혁명사적지 참관(중앙통신)

대남 ○ 국내 방송 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 추가 발생 등 현황 보도(중앙통신)

대외 ○ 기타동향

-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석과 외교관계 설정 70주년 계기 축전 교환(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재룡 내각 총리·리선권 외무상, 외교관계 설정 70주년 계기 베트남 정부수상·부수상에게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베트남 정부수상, 외교관계 설정 70주년 계기 김재룡 내각 총리에게 축전(중앙방송)
-

이달의 역사

- 01.01. 김일성, '신년사' 최초 발표(1947년)
- 01.01. 「전반적 무상치료제」 시행일(1953년)
- 01.01. 「협동농민 사회보장제」 시행일(1985년 10월 4일 채택)
- 01.01. 「오중흡 7연대 칭호 쟁취운동」 시행일(1996년)
- 01.06. 제4차 핵실험 실시(2016년)
 - ※ 김정은, 2015년 12월 15일 수소탄시험 진행 명령 하달
 - ※ 김정은, 2016년 1월 3일 수소탄시험 최종명령서 수표
 - ※ 조선중앙통신 특별 중대보도(2016년 1월 6일, 12시 30분)
: "2016년 1월 6일 10시(평양 時), 수소탄시험 성공적 진행" 보도
- 01.08. 김정은 출생일
- 01.08. 건재공업절(1983년 12월 9일 제정)
- 01.09.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및 공동보도문 발표(2018년, 판문점 평화의 집)
- 01.10. 북한, NPT 재탈퇴 선언(2003년) ※ 북한, NPT 탈퇴 선언(1993년 3월 12일)
- 01.12. 김형권(김일성 삼촌) 사망일(1936년)
- 01.12. 북한, 서울올림픽 불참 발표(1988년)
- 01.14. 「노농적위군」 설립일(1959년)
- 01.15. 「훈민정음」 창제일(1444년)
- 01.15. 北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개최 및 공동보도문 5개항 채택(2018년, 판문점 통일각)
- 01.17.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결성일(1946년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창립, 2016년 8월 개칭)
- 01.17.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개최 및 공동보도문 11개항 채택(2018년, 판문점 평화의 집)
- 01.20.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1992년)
- 01.21. 북한, 청와대 기습(1968년)
- 01.22. 북한 '광명성 3호'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 채택(2013년)
- 01.23. 북한, 푸에블로 호 납치(1968년)
- 01.23.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 개소(2006년)
- 01.25.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 북측본부」 결성일(1991년)

- 01.27. 동해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 개소(2006년)
- 01.28. 무역절(1997년 1월 23일 제정)
- 01.29.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2001년 1월 29일 ~ 31일, 금강산)
- 01.29.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채택(2004년)
- 01.30. IAEA 「핵 안전 협정」 서명(1992년)
- 01.31. 「조선 농업근로자 동맹」 결성일(1946년)
- 01.31. 남북 선수단, 공동훈련 진행(2018년 1월 31일 ~ 2월 1일, 마식령스키장)